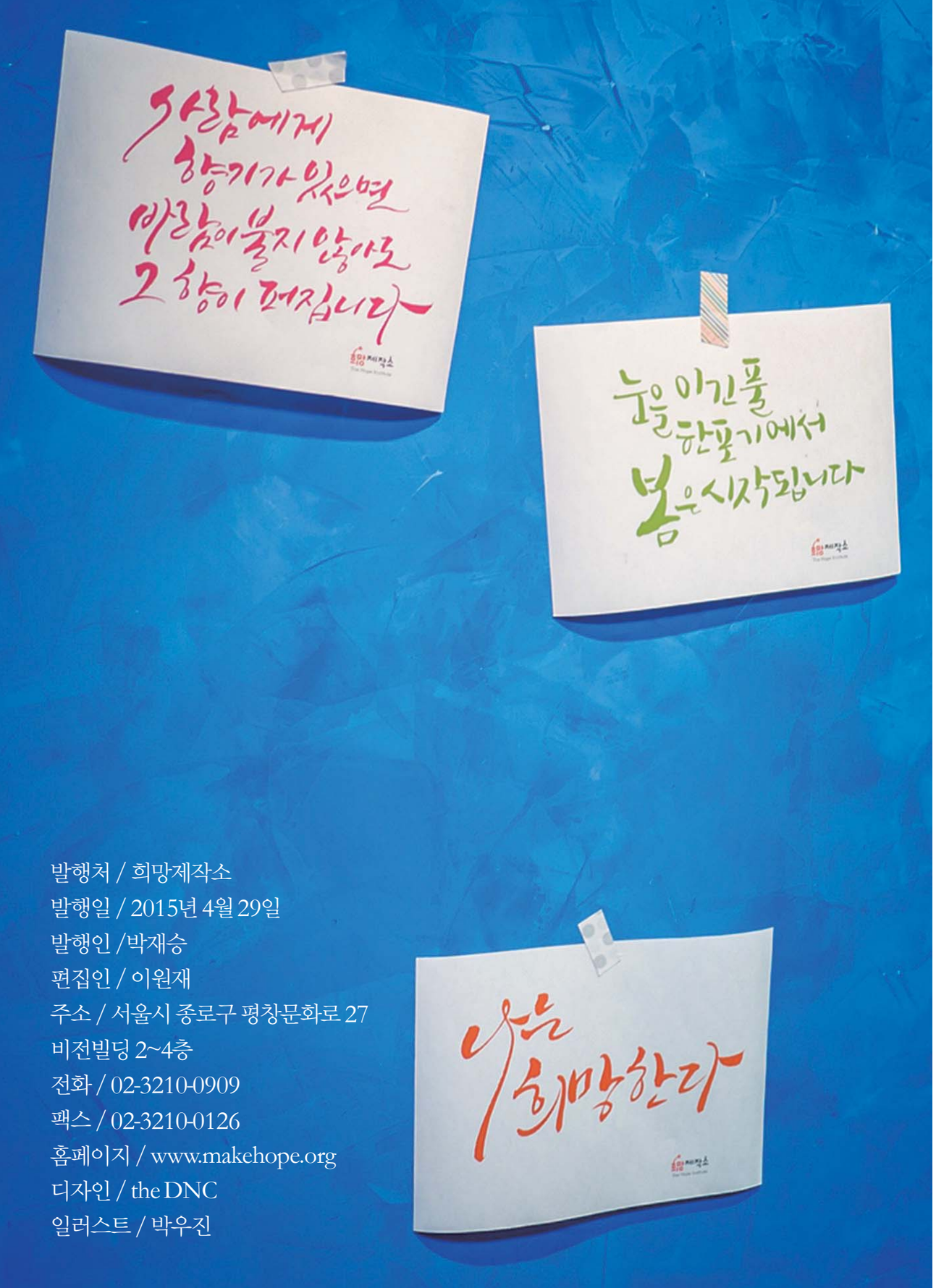
따뜻한 희망이 한 걸음 희망에게

희망제작소 2014 연례보고서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발행처 / 희망제작소
발행일 / 2015년 4월 29일
발행인 /박재승
편집인 / 이원재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27
비전빌딩 2~4층
전화 / 02-3210-0909
팩스 / 02-3210-0126
홈페이지 / www.makehope.org
디자인 / the DNC
일러스트 / 박우진

희망제작소 2014 연례보고서

따뜻한 희망이 한 걸음 희망에게

목차

4. 따뜻한 희망
6. 인사말
8. 여는말
10. 희망제작소에 바란다
12. 부서활동
20. 걸어온 길
22. 살림살이
24. 반갑습니다
26. 사업소개
34. 희망이 희망에게
36. 후원회원 활동
50. 지혜의 숲
52. 희망의 별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당신의 한 걸음이 희망이 됩니다

‘00세대’가 아니라
당당한 내 이름으로
마음껏 일하고 싶은 이들의
한 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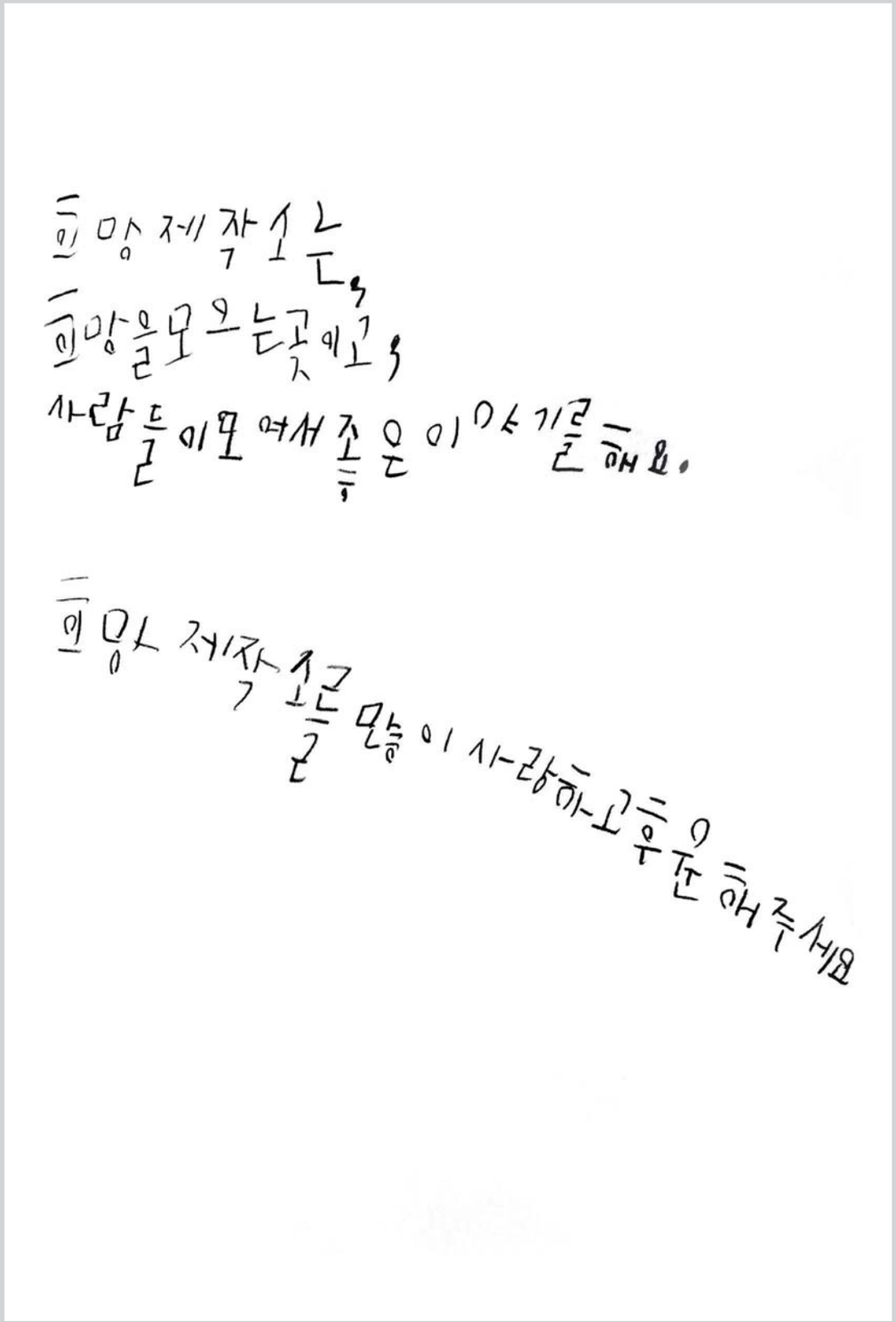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
평등한 사회를
상상하고 만드는 이들의
한 걸음

아이들이 안전하고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이들의
한 걸음

내 삶의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사소한 기쁨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싶은 이들의
한 걸음

상상하고
실현하는
새로운 세대의 제안을 모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는 길
우리 함께

원정연. 글+사진



일곱 살 원정연 군은 희망제작소 최연소 후원회원입니다.
아빠 원종철 님, 고모 원종아 님과 함께 가족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매달 강산애 산행, 후원회원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참가해서 후원회원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씩씩한 어린이입니다.

2015년,
‘새로운 세대의 제안’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대한민국은 어엿하게 성장했습니다. 꿈도 꾸지 못하던 글로벌기업을 몇 개나 배출했고 번듯한 정치적 진보를 이뤄냈으니 말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도 성취해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사회는 누구도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사회 곳곳에 고도성장이 가져온 불평등이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하면서도 국민들은 늘 정책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대한민국이 이뤄낸 그 화려한 성과는 체감하기가 힘듭니다.

체감도가 가장 낮은 세대가 청년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2월 현재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1.1%입니다.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1999년 7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잃어버린 20년’을 지나 30년을 향해 장기침체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일본보다도 4.5%나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은 그나마 실업자 판정 기준이 까다로운 데도 이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자가 되니 취업 포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권장하듯이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으로 확대하면 아마도 실업률은 30%를 훌쩍 넘길 듯합니다.

일자리 문제만이 아닙니다. 청년들은 정치와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제는 반발조차 덧없다는 정서를 가진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정서가 사회에 대한 체념과 포기 그리고 개인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희망제작소는 2006년 설립한 이래, 민간 독립 싱크탱크로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대안적 해법을 내놓는 데 투신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풀뿌리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지방행정혁신을 통한 지역의 변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기업가들과 호흡하며 다른 기업, 다른 경제를 만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시민의 집단지성에 기반을 둔 사회혁신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기존과 다른 방식의 성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직사회와 시민의 의식 변화를 꾀하기도 했습니다. 각각 희망제작소만의 전문적 방법론을 투입해 진행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성과도 거뒀습니다. 희망제작소의 가치를 받아들인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은 몰라보게 혁신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한국 사회 변화의 한 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참여 정책수립은 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교육을 받은 공직자와 시민은 각각 자기 영역의 리더와 활동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2015년 희망제작소는 새로운 세대의 문제에 천착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희망제작소의 2015년 의제는 ‘새로운 세대의 제안’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제안’은 무엇보다 청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연령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과거 세대에서 새로운 세대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의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산업화를 이뤘던 패러다임, 민주화를 이뤘던 패러다임은 그 시대에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혁신적 사회문제 해결방법인 ‘사회혁신’, 성장지상주의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사회를 추구하는 비전인 ‘지속가능한 발전’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희망제작소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은 후원회원님들입니다. 후원회원님들의 힘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역량을 2015년에는 한국 사회 문제를 새로운 세대의 대안으로 풀어내는 데 투입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미래 세대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제작소를, 그리고 한국 사회의 새로운 세대를 향한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대담한 목소리로
더 기민하게
나아가야 할 때

유시주 희망제작소 이사

어떤 조직이나 기관의 출범은 어떤 정신의 결집이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 아기의 탄생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보편성 위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유일무이한 하나의 개성의 탄생이기도 하듯이. 지금으로부터 9년 전 희망제작소가 출범할 때, 그것은 물론 한국 시민사회의 역사적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그때까지는 흔치 않았던 어떤 정신의 탄생이기를 또한 기대했다. 시민사회의 내면을 더 깊이 있고 풍요롭게 만듦으로써 이윽고 한국 사회를 더 합리적이고 더 정의롭고 더 기품 있게 만드는 정신.

그 정신이 하지 말았으면 했던 것을 열거하자면 세상을 선과 악, 흑과 백, 내 편과 네 편의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 다른 역사와 조건 속에서 탄생한 이론을 섣불리 빌려오는 지적인 나태, 선한 의도와 아름다운 방향성에만 기대어 현실의 기획과 시도가 불러일으키기 마련인 복잡한 이해관계의 마찰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 안이함, 합의할 수 있는 공통의 것들보다 합의하기 어려운 차이를 밝혀내는 데 골몰하는 것, 필요 이상의 공격성, 주장과 말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보다 넘치는 것….

반대로 그 정신이 해냈으면 하고 바랐던 것을 열거하자면 모든 연구와 이론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투임을 잊지 않기, 나날의 삶과 거대한 담론 사이의 빈 공간을 잇고 채울 수 있는 시야와 안목을 키울 것, 성과가 곧 나타나지 않더라도 묵묵히 경험의 토대를 쌓아나갈 것, 시행착오와 오류, 자기성찰과 토론을 통해서 경험의 가장 올바른 의미를 이끌어내고, 그것으로 한국 사회의 가장 생생한 현장에 뿌리내린 지식과 이론을 만들어낼 것, 굼뜨고 답답해 보이더라도 끝까지 갈 것….

지난 9년간, 희망제작소 내부에서 격렬하게 토론되고 때로 갈등으로까지 치달았던 주제들은 크게 보아 세 가지였다고 생각된다. 첫째, 정체성. 즉 희망제작소는 무엇인가? 둘째, 지속가능성. 특히 시민사회에 기반을 둔 독립적인 싱크탱크로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재정적인 독립성 확보의 문제. 셋째, 사회적인 영향력. 싱크탱크는 사회의 변화를 위한 지식과 정책을 생산하고 발신하는 조직인데, 그러한 기준에서 볼 때 희망제작소는 유능한 조직인가? 첫 3년간은 정체성, 그 다음 3년간은 재정안정성, 그리고 최근 3년간은 싱크탱크로서 사회적 영향력의 문제가 주된 고민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희망제작소의 구성원들은 언제나 그러한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토론해 왔을 뿐 아니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 문제로 9년이라니, 너무 긴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앞으로 가야할 먼 길을 생각하면 9년은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데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전에 없었던 어떤 정신의 탄생을 기대한다면, 그 정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한다면, 9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2015년 계획을 세우면서 희망제작소 구성원들은 시민사회에 기반을 둔 독립적인 싱크탱크로서 해야 할 일들을 더 유능하게 해내자고 약속했다고 들었다. 이제는 더 대담하고 더 기민하게, 세상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이야기이다. 내년은 창립 10주년, 그런 약속을 할 때도 되었다. 지난 9년간의 망설임과 머뭇거림, 조심스러움, 반신반의, 단서와 유보, 미숙함과 실수, 굼뜸과 미련함이 있었기에, 바꾸어 말하면 이론과 현장, 나날의 삶과 담론 사이의 거대한 공간을 헤매고 다닌 내공이 있기에 아마도 후퇴는 없을 것이다.

연구조정실

연구조정실은 희망제작소 내 · 외부에서 사회혁신 의제를 모으고 정리해서 발신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한국 사회의 주요 의제 중 희망제작소의 전략 의제를 정하고, 의제와 관련된 연구와 사업을 기획하며, 만들어진 결과를 외부로 발신하는 연구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한 희망제작소가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이 희망제작소의 의제와 맥락을 같이 하도록 조정합니다.
연구조정실은 희망제작소가 우리 사회에서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 희망제작소 전략 의제 연구
- 연구 결과를 보고서/포럼/언론 등을 활용하여 발신
- 글로벌 사회혁신 네트워크 형성

정책그룹

정책그룹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조직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의제를 제안하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는 정책전문가 그룹입니다.
지방자치와 지속가능발전 방안, 참여민주주의 확산, 미래지표 개발, 공공리더 연수 등 희망제작소가 발신하는 의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개발하고 연구용역과 위탁사업을 통해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책그룹은 중앙과 지방이 고르게 발전하고, 탁상공론의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를 정책으로 엮어내는 희망제작소의 비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지역 정책연구 방법론 정립
- 지역의 혁신을 선도할 미래 어젠다 발굴
-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청년정책 기획

시민사업그룹

시민사업그룹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유쾌한 사회변화를 꿈꾸는 사회혁신가 그룹입니다. 희망제작소의 사회혁신 의제를 함께 논의하고 실천하는 새로운 시민과 만나기 위해 세대별/ 단계별 시민교육, 출판, 참여 워크숍,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또한 희망제작소를 지지하고 공감하는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후원회원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며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사업그룹은 희망제작소가 더 많은 시민의 상상과 제안을 모아내는 신나는 시민 놀이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새로운 시민 참여 방법 연구와 실행
- 시민의 제안을 모아서 사회혁신 의제와 연결
- 세대별/단계별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 후원회원 확대와 모금 방법 연구

경영지원실

경영지원실은 희망제작소의 각종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인사와 총무, 재정, 자료관리 등 전반적인 내부 업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또한 연구원 교육, 동아리 활동, 공동체 행사 등 희망제작소 조직문화를 만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인사(공육 포함), 재무관리, 총무
- DB 관리(연구 보고서 데이터 관리)
- 조직문화와 업무혁신 방안 연구

새로운 세대 더 많은 상상과 더불어

2005년
따뜻한 희망

8월 8일 희망제작소 설립 제안

12월 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동일빌딩 사무실 입주(준비위 해소, 연구원 5인 상근 시작)

2006년
도전의 시작

1월 9일 연구원 1기 공채

2월 25일 창립 발기인 총회

3월 27일 희망제작소 창립

창립기념 사진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희망씨'

창립기념 국제세미나 '싱크탱크와 우리시대 희망찾기'

5월 1일 '작은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꿔라' 시민 아이디어 공모

11월 23일 '우리시대 희망찾기' 7개 영역 연구진 회의

2007년
전진, 전진, 전진

3월 28일 1000번째 프러포즈, 사회창안상 시상

희망제작소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

5월 15일 서울메트로 · 도시철도공사와 '더 좋은 지하철 만들기' 포럼

9월 10일 제1기 행복설계 아카데미 개강

11월 29일 해피시니어 '중고령 퇴직자의 일의 의미와 사회적 공헌활동' 심포지엄

12월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련 심포지엄 '좋은 준비, 좋은 정부'

2008년
성장통

5월 26일 제1기 소셜 디자이너스쿨(SDS) 개강

10월 8일 사회창안주간, 사회창안 국제회의

10월 11일 불만합창단 페스티벌

11월 25일 해피시니어 2주년 기념 심포지엄

12월 6일 소시지팩토리 사회적기업 페스티벌

2009년
긴 터널을 지나

1월 16일 완주군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3월 24일 창립 3주년 기념 후원의 밤 '…그래도 나는 희망한다'

4월 21일 호프메이커스클럽 창립

4월 25일 평창동으로 사무실 이전

12월 9일 사진전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12월 22일 1004클럽 출범

2010년
다시 출발선에서

6월 5일 직장인 행복설계아카데미 '퇴근 후 Let's' 1기 개강

9월 2일 제1회 아시아 NGO 이노베이션 서미트

9월 7일 목민관클럽 창립

9월 11일 강연콘서트 '세상을 바꾸는 천개의 직업'

2011년
성장에서 내실로

2월 19일 수원 시민창안대회

2월 24일 커뮤니티비즈니스 아이디어대회 '우리 동네를 살리는 수만 가지 상상'

4월 5일 주민참여예산학교

5월 19일 희망제작소 5주년 콘퍼런스 '잘하고 있습니까'

10월 28일 수원시 평생학습관 위탁 운영

2012년
새로운 길을 향해서

2월 25일 '마을이 학교다' 개강

3월 14일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업무 협약

5월 22일 시니어 착한경제아카데미 개강

6월 11일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11월 29일 사회혁신기업가 포럼

2013년
한 걸음 더

2월 20일 후원회원 감사의 식탁

5월 6일 시니어드림페스티벌

6월 13일 한독 도시교류포럼

7월 13일 서울시 동북4구 100인 원탁회의

10월 19일 청년인생학교

10월 24일 온갖문제 매거진 프로젝트

11월 28일 해피시니어 어워즈 시상

2014년
함께 부르는 희망의 노래

2월 15일 휴먼라이브러리 콘퍼런스

6월 27일 사회적경제 핵심인재 육성센터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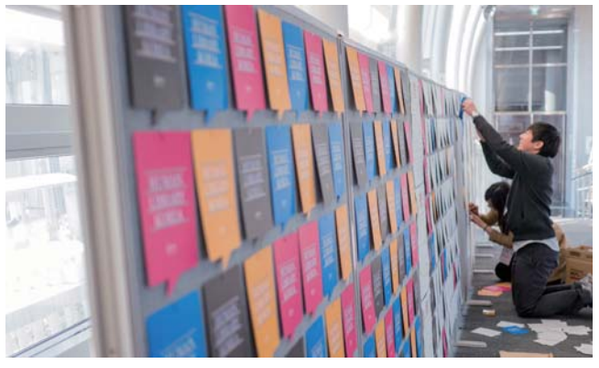
7월 18일 노란테이블 : 한국을 바꾸는 천개의 행동

10월 1일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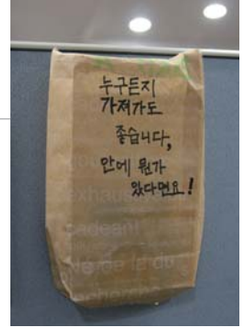
10월 31일 교육, 혁신을 만나다

12월 11일 후원회원의 밤 '괜찮아 희망이야'

효과적인 재정 관리로 변화의 시기를 견딘 한 해



희망제작소 재정은 후원회원들의 십시일반 후원비와 연구용역, 교육수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재정은 대부분 지역과 중앙이 조화롭게 발전하고, 시민의 제안을 모아 사회적 대안 의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활동에 사용된다. 희망제작소가 부족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9년간 민간 싱크탱크로 꾸준하게 활동해왔던 것은 시민의 후원과 참여, 관심과 지지가 든든하게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2014년은 지속가능한 희망제작소를 위하여 달려왔던 가쁜 숨을 잠시 고르며 새로운 미래를 고민하고 내부 역량 관리에 집중하는 한 해를 보냈다. 조직개편으로 새로운 체제를 만들면서 한국 사회를 관통한 아픔과 함께 하며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고 준비하였다.
2014년 총수입 30억 원, 총지출 30억 원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하였지만 효과적인 비용관리를 통해 수지를 맞추려고 노력하였다.

균형 있는 재정 운용

2014년 수입내역은 후원회원금이 12억 원으로 전년대비 33% 감소하였고, 연구용역은 10억 원으로 42% 감소하였다. 반면 교육용역은 약 7억 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하였다. 자료집 판매 및 광고수입도 전년대비 약 40% 정도 증가하였다.
교육용역은 축적된 교육 콘텐츠를 통한 지자체 교육 및 희망제작소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자 맞춤형 교육으로 성과를 이루어냈다. 기부금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기업 기부금이 감소한 효과이다. 지출내역은 전년 대비 22% 감소하였다. 이는 수입내역의 감소폭 25%와 비슷한 비중으로 수입과 지출을 연동하는 희망제작소의 재정 운용방식을 나타낸다 할 수 있다.

새로운 세대의 제안을 향한 한 걸음

2015년 희망제작소는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자립의 토대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세대가 제안하는 최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찬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희망제작소가 우리 사회에서 보다 명료한 가치와 의미를 가진 싱크탱크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열정을 보태고 지지해준 시민과 후원회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비교 단위 : 백만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감율
수입	3,487	3,222	3,739	4,098	3,060	-25%
지출	3,524	3,314	3,336	3,926	3,068	-22%
당기순이익	-37	-92	403	172	-8	-105%

수입내역 단위 : 백만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감율
기부금	1,809	1,492	1,647	1,782	1,189	-33%
연구용역	868	810	1,382	1,717	1,003	-42%
교육용역	673	818	516	446	678	52%
자료집판매금	41	43	63	51	70	37%
광고수입	30	43	42	42	61	45%
인세수입	42	1	3		8	
임대료	7	5	1	0	0	0%
출판매출			56	15	15	0%
이자수입	16	4	16	13	10	-23%
기타수입	1	6	13	32	26	-19%
합계	3,487	3,222	3,739	4,098	3,060	-25%

지출내역 단위 : 백만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감율
인건비	1,222	1,414	1,467	1,885	1,471	-22%
사업비	1,467	1,399	1,401	1,733	1,333	-23%
운영비	835	501	468	308	264	-14%
합계	3,524	3,314	3,336	3,926	3,068	-22%

기부금내역 단위 : 백만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감율
기부금 총액	18.1	14.9	16.5	17.8	11.9	-33%

희망제작소, 뭐하니? 궁금하세요?

희망제작소는 '희망제작소의 모든 것'이 궁금한 시민을 위해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을 넘어 해외에서 350여 명의 시민이 '왜 희망제작소인가요?' '무엇이 어떻게 희망을 만들고 있나요?'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등 각각의 질문을 가지고 희망제작소를 찾았습니다. 다양한 방문 이유가 어딘가 닮아 보이는 것은 결국 '희망'을 찾기 위해 희망제작소를 방문했기 때문이겠지요.

"희망제작소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이 함께 하는 다양한 사회혁신 사업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제작소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투어 과정에서 희망제작소가 이름 그대로 한국 사회의 '희망'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중앙대학교 메카타 모도코 세미나 팀' 방문 후기 중

"사회가 변화하고 진보의 길로 나아가려면 현식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아이디어를 모아 직접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나의 아이디어로 사회가 바뀌는 가슴 떨리는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미얀마 유학생 난 오카타 님' 방문 후기 중

더 많은 희망을 나누고 공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 활짝 열어 두고 기다리고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두드려 주세요!

기관방문 문의
권성하 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02-2031-2184 shya@makehope.org

2014 기관방문 내역

국적	구분	소속	방문목적	인원
홍콩	대학생	홍콩 소재 대학	NPO/사회혁신기관 탐방	16
한국	교사	경기도교육연수원	NPO/사회혁신기관 탐방	10
한국	직장인	기업	자문	1
한국	대학생	숙명여자대학교	NPO/사회혁신기관 탐방	3
한국	대학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NPO/사회혁신기관 탐방	2
한국	대학생	한국외국어대학교	NPO/사회혁신기관 탐방	2
한국	대학생	건국대학교	NPO/사회혁신기관 탐방	5
한국	고등학생	산마을고등학교	NPO/사회혁신기관 탐방	1
한국	유관기관	한국지역진흥재단	벤치마킹/자문	1
한국	대학원생	서강대학교 대학원	자문	1
한국	중학생	원광중학교	NPO/사회혁신기관 탐방	45
한국	대학생	숙명여자대학교	NPO/사회혁신기관 탐방	3
한국	대학생	그리스도대학교	NPO/사회혁신기관 탐방	1
한국	대학생	숙명여자대학교	NPO/사회혁신기관 탐방	3
한국	유관기관	익산시 자원봉사종합센터	벤치마킹/자문	2
한국	대학생	한라대학교	NPO/사회혁신기관 탐방	4
한국	유관기관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벤치마킹/자문	6
홍콩	유관기관	SOW ASIA	벤치마킹/자문	1
한국	대학생	가천대학교	NPO/사회혁신기관 탐방	1
한국	대학생	경기대학교	NPO/사회혁신기관 탐방	8
한국	대학생	영남대학교	NPO/사회혁신기관 탐방	3
미국	교수	미국 소재 대학	NPO/사회혁신기관 탐방	1
한국	교사	경기도교육연수원	NPO/사회혁신기관 탐방	8
한국	유관기관	익산시 자원봉사종합센터	NPO/사회혁신기관 탐방	15
한국	직장인	기업	자문	1
한국	유관기관	부산 여성의 전화	벤치마킹/자문	3
한국	중학생	당산서중학교	NPO/사회혁신기관 탐방	1
한국	은퇴 시니어	미래사회교육연구원	NPO/사회혁신기관 탐방	15
한국	유관기관	국가경영전략연구원	벤치마킹/자문	3
한국	대학생	강남대학교	NPO/사회혁신기관 탐방	4
한국	유관기관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벤치마킹/자문	8
한국	대학생	연세대학교	NPO/사회혁신기관 탐방	2
한국	고등학생	광동고등학교	NPO/사회혁신기관 탐방	15
한국	유관기관	성남시청소년재단	벤치마킹/자문	20
한국	고등학생	간디학교	NPO/사회혁신기관 탐방	2
홍콩	대학생	홍콩 소재 대학	NPO/사회혁신기관 탐방	40
한국	대학생	성공회대학교	NPO/사회혁신기관 탐방	10
한국	유관기관	초록우산	벤치마킹/자문	5
홍콩	유관기관	Tech Soup	벤치마킹/자문	5
한국	유관기관	참여연대	NPO/사회혁신기관 탐방	15
일본	유관기관	일본 NPO여러 단체	벤치마킹/자문	10
일본	교수	일본 무슨 대학	벤치마킹/자문	2
일본	유관기관	일본 NPO여러 단체	벤치마킹/자문	10
한국	유관기관	서울시 여성가족복지재단	벤치마킹/자문	10
일본	직장인	개인 방문	NPO/사회혁신기관 탐방	2
한국	유관기관	부산시장애인복지관	벤치마킹/자문	15
한국	일반인		NPO/사회혁신기관 탐방	1
일본	유관기관	도네르모 / 아카즈키	NPO/사회혁신기관 탐방	15
합계				357

방문자 구분	건	인원
유관기관	17	144
대학(원)생	17	108
청소년	5	64
교사/교수	4	21
기타	5	20
총합	48	357

방문자 국가	건	인원
한국	38	255
홍콩	4	62
일본	5	39
미국	1	1
	48	357

방문 목적	건	인원
NPO/사회혁신기관 탐방	30	253
벤치마킹/자문	18	104
	48	357

2014 대표 사업소개 1

휴먼 라이브러리

낯선 사람은 당신이 아직 만나보지 못한 친구이다

이 문구는 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오랜 슬로건이며 휴먼라이브러리의 목적을 명확하게 담고 있다.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면서 일상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휴먼라이브러리는 2000년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휴먼라이브러리에서 대여하는 사람책은 대다수 사람들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며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과 맞닥뜨려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독자'가 될 수 있다. 희망제작소는 휴먼라이브러리 창립자 로니 에버갤을 초청해서 2014년 2월 휴먼라이브러리 콘퍼런스를 국내에서 시작했다. 한 해 동안 '너는 마음이 마음대로 되니' '원래 그런 가족은 없다' 등 우리 사회의 편견을 뛰어넘는 다양한 휴먼라이브러리를 진행했다.

2014 대표 사업소개 2

한국을 바꾸는 천개의 행동

노란테이블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 희망제작소는 대형사고가 되풀이 되고 쉽게 묻혀 버리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 노란테이블 : 한국을 바꾸는 천개의 행동을 기획했다. 노란테이블은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토론하는 캠페인이다. 시작은 2014년 7월 18일 약 300여 명의 시민이 함께 모여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해 논의한 '한국 사회를 바꾸는 천개의 행동, 노란테이블 300인 원탁토론'이었다. 이후 약 150여 명의 사람들이 노란테이블 토론진행자 교육을 수료했고 교사, 대학생,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 기업의 사회공헌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노란테이블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모여서 토론할 수 있도록 노란테이블 툴킷을 제작해서 배포하기도 했다.

2014 대표 사업소개 3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아파트는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도시에서 이제 아파트는 대표적인 주거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서로 벽을 공유하고 몇 년 동안 이웃하고 살면서도 인사 한 번 나누기 힘든 곳이 아파트다. 도시에서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면서 아파트에서도 공동체 문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희망제작소는 SH공사, 한겨레신문사와 함께 2013년에 이어서 2014년에도 '주민참여형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만들기'사업을 진행했다. 2013년에는 월계동 사슴2단지, 강일동 리버파크 7단지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아파트 환경개선, 커뮤니티 만들기, 마을 축제 등을 통해서 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했다. 2014년에는 이러한 공동체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졌다. 더불어서 청년 공공임대주택에서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작업도 함께 했다. 서울시가 심각한 청년 주거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대학생 희망하우징'에 입주한 청년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과제를 찾고 함께 해결점을 모색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2014 대표 사업소개 4

시니어 드림페스티벌

세대를 넘어, 세대가 함께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시니어가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감하는 청년들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드는 아이디어 축제이다.

이 프로그램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서 시니어가 가진 적극적인 활동 욕구를 사회공헌으로 연결해서 인생의 방향을 재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는 '세대통합'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서로 다른 세대 간에 공감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하였다.

2014년에 두 번째 열린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4월부터 시니어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으로, 6월에 청년Doer 모집, 9월에 결선대회까지 5개월 동안 숨 가쁜 일정을 진행했다.

2014년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남한산성에서 지역주민이 스스로 문화 활동가가 되어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프로젝트 '남한산성 마실장터'를 기획한 남한산성 꽃할매팀이 1등을 수상했다. 그 외에 '장애인 도시텃밭' '찾아가는 청소년 이야기 멘토링'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상담카페' 등이 수상했다.

2014 대표 사업소개 5

아니스

Asia NGO Innovation Summit

아니스(ANIS)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아시아 각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시아의 대표적인 NGO, 혁신단체, 그룹의 리더들이 모여 다양한 방법과 활동을 서로 나누고 배우는 네트워크이다.

희망제작소와 인텔 아시아가 협약을 맺어서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 각 나라의 혁신적인 사례와 아이디어를 나누고 아시아 NGO들의 역량을 키우며, 새로운 연대를 통해 사회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5회를 맞이한 아니스 2014는 11월 17~19일 3일간 서울에서 열렸다. ANIS의 주요 멤버인 아시아 사회혁신가들이 모여서 '아시아의 사회혁신 : 테크놀로지 전략과 리더십'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대회 이틀째인 18일에는 아시아 사회혁신의 오늘과 미래를 함께 그려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공개세션을 열었다.

아니스에서는 같은 시대, 아시아라는 같은 지역에 살면서 사회혁신이라는 같은 꿈을 꾸는 동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나누면서 사회혁신에 대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14 대표 사업소개 6

목민관 클럽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하여

목민관클럽은 다산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창립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이다. 희망제작소가 제안해서 민선 5기 자치단체장들이 협력과 소통을 위한 연구 모임으로 시작했다. 현재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다.

2014년에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세미나와 포럼을 진행했다. 7월에 민선 6기 출범 기념세미나 '안전안심 생활정치 만들기'를 시작으로 '지방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속가능발전' 캐나다의 사회적경제와 거버넌스 현장을 둘러보는 해외탐방 등 세 차례 정기포럼이 열렸다.

2014 대표 사업소개 7

사회적경제 핵심인재 육성센터

호혜와 연대로 뿌리내리다

사회적경제 핵심인재육성센터는 국내 사회적경제 핵심인재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습플랫폼으로 1년 동안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과정은 '성장기 사회적 기업가' '성장기 사회적기업 COO' '스타트업 사회적기업가' '인큐베이터' '정책전문가' 등 교육이 필요한 대상별로 세분화해서 기획했다. 교육 내용은 가치와 경험, 정보, 자원, 역량을 교류하는 네트워크 형성을 돕고, 역량을 강화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이슈를 해결하는 워크숍, 케이스 스터디, 실습, 그룹 코칭 등으로 이루어졌다.

2014 대표 사업소개 8

한독도시교류 포럼

청년의 일과 성장, 지역과 사회에 묻다

희망제작소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은 지난 3년간 매년 한국과 독일 지방도시의 좋은 사례를 나누는 포럼을 열어왔다. 2014년 제4회 한독도시교류포럼은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과 시흥에서 열렸다. '청년의 일과 성장, 지역과 사회에 묻다'라는 주제로 독일과 한국의 직업교육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나흘 동안 열린 간담회와 대중강연, 포럼에서 독일 초청자들은 독일의 일과 학습이 통합된 직업교육 정책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서울시의 청년혁신일자리 사업과 마을공동체 그리고 목민관클럽에 속한 도시들의 청년일자리 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을 함께 탐방하며 독일에서 배울 점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과 질의응답을 나눴다.

2014 대표 사업소개 9

한일 포럼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하는 삶을 말한다

희망제작소는 2009년부터 매년 커뮤니티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주제로 한일포럼을 개최해 왔다. 2014년 제6회 한일포럼은 '커뮤니티비즈니스,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한 농업과 농촌의 활성화'를 주제로 아산과 서울 청년허브에서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렸다.
첫날 아산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도농교류를 위한 일본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사례를 소개했고, 둘째 날 청년허브에서 열린 강연과 오픈토크에서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전개하고 있는 도시농업, 농산물 유통, 귀농귀촌 등 도농 교류활동을 소개했다.

2014 대표 사업소개 10

교육, 혁신을 만나다

노란테이블 + 휴먼라이브러리

희망제작소가 발굴한 토론과 대화의 새로운 방법론인 '노란테이블'과 '휴먼라이브러리' 진행방법을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서 귀 기울이고 싶어 하는 기획자와 현장진행자들이 참여했고 10월과 11월에 두 차례 진행했다.

기획자는 새로운 방법론을 익혀서 참가자들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고, 현장운영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운영과정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노하우를 살펴볼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기획했다.

2014 대표 사업소개 11

퇴근후 Let's

10년 후 내 삶을 설계한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진지 오래다. 많은 직장인들이 미래에는 현재와 다른 삶이 펼쳐지기를 꿈꾼다. 2014년 6기까지 진행한 퇴근후Let's는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미래의 삶을 디자인하는 30~40대 직장인들을 위한 미래상상 프로젝트이다. 자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하는 경험을 통해서 오늘의 활력을 얻고 내일의 변화를 준비한다.

2014년에는 '세상을 바꾸는 발상의 전환과 아이디어' '호모루덴스로 행복하게 살기' '착한 전문가와 함께하는 재정컨설팅' '사회적 가치 만들기' 등 주제를 강좌와 워크숍으로 진행했다.

2014 대표 사업소개 12

소셜이노베이션 캠프36

세상을 바꾸는 36시간

소셜이노베이션캠프(Social Innovation Camp)36은 IT기술을 활용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혁신 프로젝트이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익적인 아이디어를 시민이 제안하면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들이 한자리에 모여 36시간 동안 실제 웹·앱 서비스로 구현하는 것이다.

2008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소셜이노베이션캠프는 스코틀랜드, 호주,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인 사회혁신 프로그램이다. 희망제작소는 2010년 아시아 최초로 소셜이노베이션캠프36을 개최했다. 이 캠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많은 웹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들이 모여 36시간의 대장정을 펼쳤다.

2014 소셜이노베이션캠프36은 5회를 맞이하여 조금 특별하게 진행되었다.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뜨거운 36시간이 펼쳐졌고, 지난 4년 동안 접수된 수많은 아이디어들 중에서 여전히 의미를 가지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5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웹·앱 서비스로 만들었다. 또한 올해 처음 참가하는 분들과 지난 4년간 맹활약했던 참가자들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했다.

연구원이 말하는

새로운 희망제작소는 시민에게 OOO이 되고 싶다

안영삼 시민사업그룹 연구원

오지은 정책그룹 연구원

우성희 시민사업그룹 연구원

"희망제작소는 시민에게 어떤 곳이 되고 싶은가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에게 물었습니다.

놀이터가 되고 싶다,
대변인이 되고 싶다,
용기가 되고 싶다,
궁금해지는 곳이 되고 싶다,
희망이 되고 싶다,
가능성이 되고 싶다,
징검다리가 되고 싶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곳을 만들겠다는 연구원들의 다짐이기도 하겠지요?

'아이디어 뱅크'가 되고 싶다

안영삼 시민사업그룹 연구원

희망을 맡기고, 찾고, 빌려주고, 갚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 희망과 관련한 상품을 팔아서 보다 나은 가치를 돌려주는 곳. '희망제작소'는 시민에게 '돈'을 다루는 '은행'이 아니라 '희망'을 다루는 '은행'이 되고 싶습니다. 시민이 희망을 맡기기도 하고, 찾기도 하면서 시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드릴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나무숲'이 되고 싶다

오지은 정책그룹 연구원

일상에 지쳐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고 싶을 때,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혼자만이 느끼는 어려움이라는 생각이 들 때, 그 말을 진정성 있게 공감하며 듣고 혼자가 아닌 함께 나아갈 힘을 만드는 곳, 언제나 내 편인(시민의 편인) 곳이 '희망제작소' 였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주치의'가 되고 싶다

우성희 시민사업그룹 연구원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독한 약을 받아왔지만 몸은 점점 허약해졌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을 때 동네 의료 생협을 찾았습니다. 선생님은 비싼 시술이나 독한 약을 처방하는 대신에 약을 어떻게 먹어야 좋은지, 주의해야 할 생활태도가 무엇인지 일러주었습니다. 환우 자조모임도 소개해 주었어요. 전문지식을 앞세워 값비싼 처방을 내리는 전문가는 많습니다. 작은 불편을 주의 깊게 듣고 쉬운 대안부터 함께 찾는 문턱 낮은 동네 병원, 희망제작소가 그런 곳이었으면 합니다.

당신이 희망의 벗입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의 홀씨를 널리널리 퍼트리는 후원회원의 친구 희망씨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후원회원들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답니다. 후원회원은 희망제작소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희망씨의 좋은 벗, 후원회원 여러분에게 희망씨가 감사의 선물로 행복한 주문을 불어넣어 드릴게요~ 희망을 드립니다, 얍!

통계로 본 2014 후원 이야기

총 회원 수
5,275명 지난 한 해, 희망제작소와 함께 해주신 후원회원 참, 고맙습니다!

신규회원 수
283명 새롭게 후원을 시작해주신 후원회원 오랫동안 함께 해주세요 ^^

물품후원
든든한 먹거리 후원회원들이 보내준 건강한 먹거리. 햅쌀, 한우, 삼겹살, 굴비, 보쌈김치, 싱싱채소, 떡, 곶감, 대추, 포도, 감, 귤, 패션후르츠 등

강산애
해발 7,875m / 130Km 후원회원과 함께 등반했던 산의 높이와 걸었던 거리

감사의 식탁
27첩 반상 후원회원을 위해 연구원들이 준비한 27가지 반찬

응원메시지
230번 파이팅 5,275명의 후원회원께서 보내주신 응원문자 메시지

사서함 2130

매월 후원회원께 문자(010-2976-2130)로 감사인사를 드렸습니다. 문자를 받고 많은 후원회원들이 응원메시지를 보내주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몇 분이 보내준 메시지를 살짝 소개합니다.

후원회원을 소개합니다

반가운 벗 ___ 신규후원

김은아 후원회원

동네를 다니다 우연히 본 간판 '희망제작소'. 이름이 참 좋다고 생각하며 지나친 후 텔레비전에서 완주의 식당 사례를 보다가도, 우리 고장 사회적 기업관련 자료를 찾다가도, 모임 후배가 고민하면서 들어간 직장이라는 소개에도 이렇게 저렇게 '희망제작소'를 만났습니다. 희망제작소의 모든 활동들을 다 알지 못하고 참여하지도 못하지만 조금씩 바뀌는 세상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좋아 적은 금액이지만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꾸준히 조금씩 희망을 제작해주세요.

강근호 후원회원

시민사회단체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친구를 통해서 희망제작소를 알게 되었어요.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활동들이 많아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직접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후원을 시작했어요. 앞으로는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 미래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정다운 벗 ___ 장기후원

최혜정 후원회원

모든 것을 잃었다 해도 희망만 남아 있다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희망은 항상 출발이자 영원한 시작이다. - 이케다 다이사쿠

이렇듯 소중한 희망을 만드는 곳. '희망제작소'. 내가 희망제작소를 후원하는 이유이다. 세상을 바꾸는 천개의 직업이라는 행사에서 처음으로 접한 희망제작소의 그 남다른 생각, 빛나는 아이디어들이 참 인상적이었다. 작고, 느린 변화일지라도 우리 사는 세상을 순리에 맞게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앞으로도 희망제작소가 멀리 내다보는 지혜로, 우리 모두 함께 잘 사는 예쁜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나 또한 생활 속에서 희망을 만들고 주변에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겠다. 아울러 희망제작소를 향한 나의 응원과 후원도 계속될 것이다. ♡

고마운 벗 ___ 물품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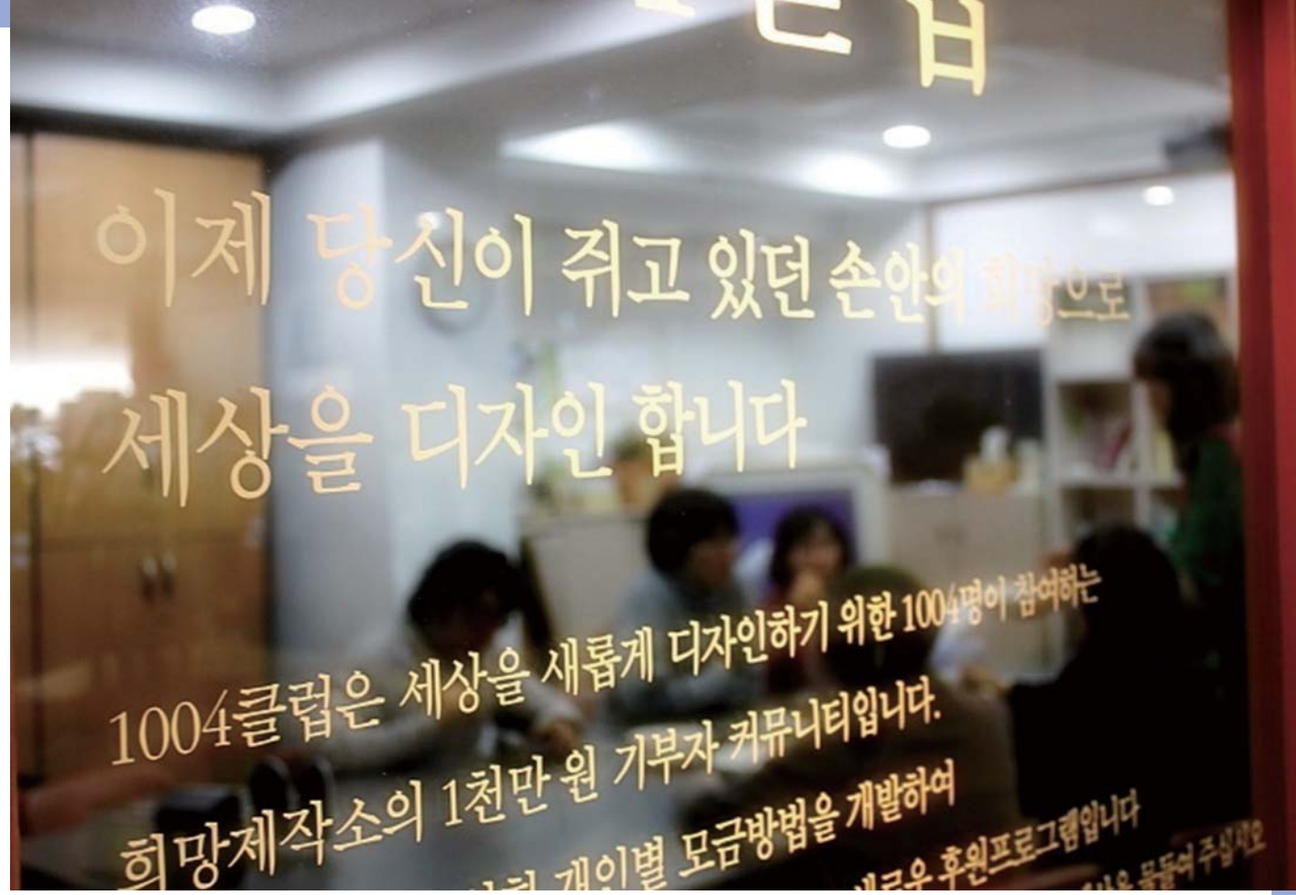
김애영 후원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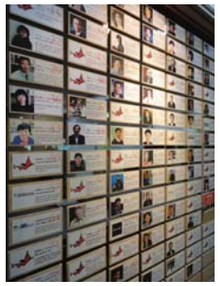
10년 전쯤에 담양으로 귀농한 후원회원입니다. 시골 생활을 하며 도시에서는 얻지 못했던 많은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게 행복을 준 농촌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올해 첫 수확한 백향과를 보냅니다. 생소한 과일인지라 연구원분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수도 있겠네요. 비타민이 담뿍 담겨 피로회복에 그만인 과일이니 드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나만의 기부 스토리
1004클럽

1004클럽은 희망으로 세상을 디자인하기 위해 3년 안에 1000만 원 이상을 후원하는 기부자 커뮤니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모금하는 천사 회원들에게는 저마다 특별한 기부 스토리가 있습니다.

- **우리 가족 다 함께 1% 기부**
  우리 집 저금통을 만들어 함께 저축하고 가족 이름으로 기부합니다.
- **수입의 1% 기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시는 다섯 분이 모여서 급여의 1%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일자리가 있고 희망제작소도 도울 수 있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 **금연 기부**
  금연과 절주를 통하여 줄인 생활비를 모아 기부합니다.
- **강의료 기부**
  외부에서 진행되는 강의료 일부를 기부합니다.
- **결혼기념일 기부**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매월 22일을 후원의 날로 정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 **출판물 판매 수익금 기부**
  출판물 판매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 **1km 사랑 기부**
  매월 등산하면서 이동하는 거리만큼 일정액의 금액을 기부합니다.
- **논문 비용 기부**
  대학교수 여럿이 모여 논문 발간 기념으로 금액을 기부합니다.





희망제작소에는 1004클럽 회원들의 사진과 기부 스토리가 전시된 '기부자의 벽'이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를 방문한 모든 분에게 기부 스토리가 소개되고 또 다른 기부의 마중물이 됩니다. 올해는 후원금을 완납한 1004클럽 회원의 기부 스토리를 모은 책 <당신은 참 좋은 희망입니다>를 만들었습니다.

나은중 1004클럽 회원

"평소에도 산을 좋아했기 때문에 강산애에 참여했습니다. 여러 좋은 분들이 있는 곳이지만 그중에서 이영구, 김형권, 유영아, 정미영 선생님 등 1004클럽 회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의 행동과 표정이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평소 나눔을 실천하는 데에서 오는 행복감이 표정에서도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저 역시 그렇게 되고 싶었기에 희망제작소 1004클럽에 가입했습니다. 물론 3년 안에 1000만 원을 후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낭비 습관을 줄이고 절주를 통해 제 몸과 마음을 다잡고자 했습니다. 수입의 일정 퍼센트와 바른 행동 실천을 통해 약정금액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김선현 1004클럽 회원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제가 가장 존경하고 언제나 그리워하는 분이에요. 지금도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되면 전 언제나 할머니를 생각합니다. 이럴 때 할머니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구요.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십일조를 한다는 생각으로 소득의 10%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후원은 한 번 하면 중단하기 힘들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어디에 얼마나 했는지 제가 모를 정도예요. 이제는 십일조보다 더 하고 있는 셈이죠. 후원하는 곳이 언제까지나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희망을 만드는 오피니언 리더의 모임
HMC

2009년 4월 세상의 변화를 꿈꾸며 희망제작소를 응원해 주는 오피니언 리더의 모임 HMC(Hope Maker's Club)가 발족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정기후원하면서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HMC 회원들은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만나 특별한 행사에 참여합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더하고 사회혁신의 현장을 답사하면서 더 나은 사회를 꿈꾸었던 아름다운 모임 HMC의 2014년 행사를 소개합니다.

윤용찬 HMC 회원 / 공감영화제 기획

교육을 통해 희망제작소에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지만 필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제 자신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걸 보면서, 다른 많은 분들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저는 예술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기존에 만들어진 의미 있는 작품 등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공감영화제도 그래서 기획했어요. 희망제작소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 참가했던 것은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참가하지 않았다면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아, 어쩌면 희망제작소를 알게 된 것, 만난 것 자체가 행운일 수도 있겠네요! 제 생각에 날개를 달아준 희망제작소가 참 고맙습니다.

1월	강연	시골의사 박경철! 희랍인 조르바를 만나다	박경철 원장
2월	탐방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답사	국립현대미술관
3월	강연	중국의 만만디가 몰려오고 있다	조정래 작가
5월	강연	'오래된 서울'에서 찾은 오늘의 서울 이야기	김창희 작가
7월	문화	새로운 과거를 찾아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8월	강연	소셜픽션, 세계는 지금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가	이원재 부소장
10월	해외 탐방	아바타의 원류를 찾아서, 중국 장가계	4박 5일
11월	출판	<당신은 참 좋은 희망입니다> 출판기념회	1004클럽&HMC
12월	봉사	연탄나눔 봉사 '뜨거운 겨울나기'	서울 노원구 일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공감영화제'

2014년에는 희망제작소와 윤용찬 HMC 회원이 '공감영화제'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성북구 아리랑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린 공감영화제는 청년과 시니어가 함께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한 것입니다.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보석 같은 영화들을 통해서 영화가 담고 있는 사회적 메시지를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상실 후원회원, 강산애

강산애가 주는 가장 큰 힘이 '우리'라는 생의 연대감이거든요.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산에 가고, 또 셋째 주 일요일에 트레킹 떠나는 것이 고정 일정인데, 그때 이루는 풍경이 흡사 하나의 마을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부터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가 함께 움직이는 거죠. 옆집 사람, 앞집 부부도 끼어들고요. 너나 없는 공동체 부락이 소풍 나가는 것 같다니까요. 우리 사회에 '희망'의 밭을 일구는 데 있어 그 가치와 방향성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임인지라 무엇보다 '신뢰'가 가장 큰 활동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강산애는 요즘 보기 드문 따뜻한 희망의 군집이랍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후원회원 친목모임
강산애

강과 산을 사랑하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모임 '강산애'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산에 오릅니다. 강산애는 후원회원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결성된 후 지금까지 끈끈한 친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1월 아차산을 시작으로 인왕산, 관악산, 북한산, 광주 무등산, 춘천 품걸리 트레킹, 인천 무의도, 북한산, 소요산, 예봉산, 호명산, 속리산에 다녀왔습니다. 산행한 고도를 모두 합치면 해발 7,875m이고, 그동안 걸었던 거리는 무려 130km나 됩니다.

2014년에는 매월 셋째 주 일요일, 트레킹을 통해 한국의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회원들과 교류하는 트레킹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매회 30명 이상이 참여하는 활기찬 모임입니다.

강산애 안에는 소모임인 '몸사랑'과 '춤사랑' '책사랑' '다큐사랑'도 있습니다. 춤사랑은 탱고를 배우는 모임이고, 몸사랑은 건강 정보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희망제작소 후원회원들은 세월호 사고 후 함께 진도 팽목항을 방문하였고, 사회 이슈에 따라 희망제작소 행사에 참여하거나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 변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를 얹은 감사의 식탁

2009년 인사동에서 평창동으로 옮기고 희망제작소 사무실에는 작고 예쁜 주방이 생겼습니다. 이 공간을 그저 연구원들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웠어요. 맞아! 후원회원들을 초대해서 연구원들이 차린 소박한 밥상에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자! 그렇게 시작한 '김치찌개 day'는 '감사의 식탁'으로 이름을 바꿔서 2014년에도 매달 계속되었습니다.

후원은 하는데,
희망제작소가 어떤 곳인지
몰라서 왔어요.

감사의 식탁에 참여한 후원회원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연구원들도 후원회원이 궁금합니다. 후원회원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후원회원이 보내주신 건강한 식재료로 연구원이 정성껏 밥상을 차려 희망제작소로 초대합니다. 희망제작소가 후원회원과 친해지는 특별한 방법. 두 달에 한 번 열리는 '감사의 식탁'이 있습니다. 교육센터 연구원들은 10월 감사의 식탁에 '휴먼라이브러리'를 올렸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는 사람책과 대화를 통해 타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10월 감사의 식탁을 담당한 교육센터와 논의를 하다가 문득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민 대상으로 많은 휴먼라이브러리를 진행했지만, 정작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후원회원 그리고 연구원에 대한 편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적이 있었나?" 잘 알고 싶지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친해지고 싶지만 막상 어떤 이야기부터 꺼내야 할지 조금은 서먹한 관계, 10월 감사의 식탁은 연구원과 후원회원에 관한 휴먼라이브러리로 차렸습니다. 사전 접수를 할 때 서로에게 갖고 있는 편견(이미지)을 수집하였고, 감사의 식탁이 열리는 날 연구원들은 풍성한 이야기 보따리를 펼치고 기다렸습니다.

후원회원이 생각하는
희망제작소 연구원에 대한
인상은 어떠했을까요?

'진보적일 것이다.' '고학력자일 것이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일 것이다.' '바빠서 외로운 사람일 것이다.' 사전조사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바빠서 외로운 사람'이라는 말에 몇몇 연구원들은 몹시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한 후원회원께서는 "생활비 통장을 뒤져보니까 아내가 희망제작소에 후원하고 있었어요. '뭐 하는 곳인지 알아나 보고 정리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 오늘 와보니 '이런 곳이면 계속 후원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라고 애기했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환영합니다. 연구원 사람책을 접한 한 직장인 후원회원은 연구원들의 삶이 좋게 보였나 봅니다. "내 자녀가 희망제작소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의 편견을 갖고 가신 건 아닌가?'라고 손사래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후원회원이 연구원들과 접촉하고 싶은 욕구가 정말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후원회원과 만날 수 있을까? 사회 혁신의 파트너로서 후원회원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희망제작소의 고민은 깊어져 갑니다.

2015년에는 감사의 식탁이 지역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더 많은 후원회원님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2014 후원회원의 밤
괜찮아, 희망이야

2014년 12월의 어떤 밤, 희망제작소 후원회원들과 연구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느 해 보다 많은 일이 있었던 2014년, 연말에 만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비록 모든 후원회원이 오시지는 못했지만 희망제작소가 만들어지고 지난 아홉 해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배가 돼 주셨던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도 낯선 장소도 바쁜 연말의 일정도 모두 걱정이었습니다만, 걱정은 걱정일 뿐 이내 행사장은 차가운 겨울 날씨 정도는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도 오래 해 오신 분들도 포토월 앞에 서서 환하게 웃으며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권성하, 정지영 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박재승 이사장님의 인사와 자폐증을 극복하고 미술과 음악에서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곽성민 군의 피아노 연주, 소장단의 인사와 질의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하기 위한 다양한 시상과 후원회원들의 기부 물품을 서로 나눴던 경매를 진행하고 제작소 연구원과 인턴연구원들이 함께 준비한 축하 공연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아홉 해, 희망제작소가 걸었던 모든 걸음은 온전히 후원회원 여러분의 힘이었습니다. 언제나 든든하고 다정한 벗이었고 나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이었습니다. 2014년, 희망제작소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에도 희망제작소는 후원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더 열심히 더 많이 상상하고 세상을 바꿔나가겠습니다.

비록 모든 후원회원이 오시지는 못했지만
희망제작소가 만들어지고 지난 아홉 해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배가 돼 주셨던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발간 자료집

강일동, 아파트 공동체가 활짝 피었습니다

2014. 12

강일동 아파트 단지 주민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이웃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

당신은 참 좋은 희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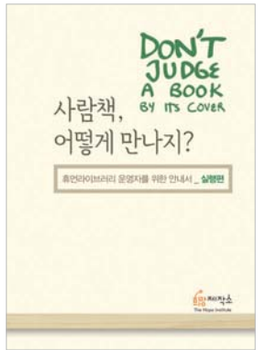
2014. 11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기부천사 모임 1004클럽 회원들의 기부 스토리를 소개

온갖문제 매거진 프로젝트

201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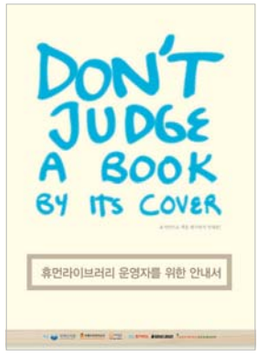
모두가 궁금해 하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시민연구자들이 탐구한 보고서



사람책, 어떻게 만나지?

2014. 10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자를 위한 안내서(실행편). 지난 1년간 기획자들이 보낸 휴먼라이브러리에 대한 질문을 모두 모아서 답변을 정리한 안내서 2편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자를 위한 안내서 1

2014. 2

휴먼라이브러리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이 휴먼라이브러리의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안내서 1편

출판

어머니의 손맛이 지은 비비정 마을이야기

2014. 5 / 임주아/(사)비비정마을 저 / 희망제작소

전라북도 완주 작은 시골마을 비비정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 그리고 마을 사람들 이야기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

2014. 2 / 윤석인 저 / 희망제작소

'지역을 바꾼 77가지 혁신사례'라는 부제로 전국 60여 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혁신사례 77개를 소개

똑똑똑 군수님, 지금 뭐하세요?

2014. 1 / 윤석인 저 / 희망제작소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길잡이 목민관총서 2편. 전국 10개 군의 지방자치혁신 사례

똑똑똑 시장님, 지금 뭐하세요?

2013. 9 / 윤석인 저 / 희망제작소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길잡이 목민관총서 1편. 전국 14개 시의 생생한 지방자치 사례

※ 희망제작소 홈페이지(http://makehope.org/category/research/archive)에서 관련도서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당신이 희망의 별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2014 후원회원

가정례 가후현 갈상돈 감미경 감정규 강경근 강경석 강구 강근호 강기석 강기정 강나경 강나루 강남이 강다현
강대봉 강대삼 강대성 강대현 강동욱 강동진 강동하 강두원 강란희 강무석 강문수 강문원 강문정 강미경 강미례
강미루니 강미선 강미순 강미애 강미영 강미옥 강미자 강미정 강미혜 강민수 강민숙 강민순 강민아 강민재
강민철 강민혜 강병규 강보향 강봉근 강봉기 강부연 강서나 강석봉 강선미 강선임 강선자 강성곤 강성옥 강성칠
강세진 강소영 강소희 강송현 강수연 강수윤 강수정 강숙영 강숙희 강승구 강승균 강승민 강승열 강신구 강신천
강신태 강연 강영근 강영미 강영민 강영수 강영숙 강영은 강영혜 강예슬 강오신 강우상 강유미 강유정 강윤기
강윤자 강윤정 강윤희 강은미 강은숙 강은엽 강은영 강은옥 강은이 강은주 강은하 강은향 강은혜 강의모 강의숙
강익구 강익현 강인구 강인숙 강인철 강인화 강재영 강전희 강정미 강정숙 강정아 강정인 강정한 강정현 강정훈
강정희 강주혜 강지선 강진영 강진주 강창경 강창국 강창수 강천구 강철성 강철원 강춘근 강태갑 강태진 강평석
강학 강한종 강현구 강현숙 강현아 강현오 강현주 강현직 강형미 강혜란 강혜원 강호선 강효원 강효주 강훈근
강희석 강희영 경규은 계나리 고경삼 고경임 고경희 고계봉 고광민 고광헌 고나연 고동진 고명섭 고명옥 고명희
고민경 고민숙 고민우 고민호 고석현 고선강 고성민 고세현 고소영 고수경 고수인 고순창 고승의 고승환 고아롱
고여주 고연순 고영민 고영신 고영희 고우주 고윤희 고은선 고은주 고은호 고재경 고재덕 고재원 고재은 고재준
고정림 고정용 고정철호 고정현 고제석 고종훈 고준영 고지영 고진석 고진용 고창규 고한용 고현석 고현선
고형문 고형준 고혜경 고혜정 고호 고희갑 고희권 고희범 고희철 공도영 공석범 공세영 공은영 공정순 공정이
공진성 공진형 공홍석 곽근식 곽금자 곽노재 곽민경 곽민주 곽상욱 곽세환 곽소현 곽시영 곽연하 곽유찬 곽은경
곽은주 곽자현 곽정숙 곽진훈 곽현지 곽혜영 곽효승 곽효정 광용스님 구경완 구도완 구민오 구보경 구보리
구봉주 구분임 구설환 구영수 구완회 구윤서 구자덕 구자영 구자현 구자호 구자훈 구장완 구재용 구준회 구진영
구혜경 구호진 구희숙 국민수 국승용 국영석 국재민 국주영은 국중영 국중창 국지연 국지혜 권가형 권건주
권경률 권경민 권경원 권구홍 권기태 권대현 권대호 권대희 권명숙 권미선 권미자 권미혜 권민석 권민주 권상동
권새로미 권석균 권선영 권선준 권성미 권성실 권성하 권소영 권수현 권숙인 권순규 권순길 권순남 권순명
권순선 권순정 권슬기 권신우 권언수 권영남 권영민 권예경 권오법 권오상 권오석 권오성 권오정 권오준 권용우
권용진 권원 권은영 권익현 권인애 권장희 권재옥 권정혜 권정희 권지연 권지희 권진택 권태승 권태진 권향연
권혁경 권혁도 권혁범 권혁세 권혁순 권혁중 권현정 권혜경 권호현 권희석 권희영 금선스님 금진하 금철영
금홍섭 기길숙 기세정 기중서 길영란 길주연 김갑수 김강 김강수 김강진 김강표 김강학 김강호 김건 김건엽
김건태 김건효 김결 김겸훈 김경남 김경란 김경미 김경보 김경석 김경숙 김경순 김경식 김경아 김경애 김경양
김경일 김경철 김경태 김경표 김경혜 김경호 김경화 김경환 김경회 김경희 김계범 김계숙 김계영 김계화 김관식
김관용 김관철 김관효 김관희 김광국 김광득 김광률 김광명 김광섭 김광순 김광열 김광유 김광진 김광현 김광회
김광희 김구슬 김구영 김귀경 김귀연 김귀정 김규범 김규완 김규원 김균희 김근상 김근영 김근호 김금옥 김기나
김기민 김기범 김기순 김기식 김기오 김기운 김기윤 김기의 김기정 김기준 김기중 김기철 김기협 김기홍 김길수
김나경 김나리 김나영 김나윤 김나은 김낙빈 김남균 김남섭 김남연 김남정 김남훈 김남희 김다슬 김다영 김달수
김대성 김대식 김대영 김대용 김대웅 김대원 김대일 김대준 김대중 김대호 김대홍 김덕 김덕창 김덕환 김덕희
김도균 김도년 김도언 김도연 김도영 김도형 김도희 김동기 김동룡 김동립 김동석 김동수 김동식 김동애 김동언
김동연 김동완 김동우 김동율 김동주 김동채 김동천 김동철 김동현 김동호 김동화 김동훈 김두관 김두기 김두선
김두연 김두장 김두하 김두환 김만일 김말숙 김말순 김맑음 김명기 김명선 김명성 김명수 김명숙 김명식 김명신
김명인 김명자 김명준 김명중 김명진 김명학 김명희 김묘경 김문 김문길 김문성 김문숙 김문식 김문아 김문자
김미경 김미라 김미래 김미련 김미리 김미숙 김미순 김미아 김미악 김미애 김미양 김미연 김미영 김미자 김미정
김미진 김미해 김미행 김미현 김미희 김민 김민기 김민석 김민섭 김민성 김민솔 김민수 김민아 김민영 김민우
김민욱 김민정 김민조 김민주 김민지 김민진 김민철 김민향 김민호 김백곤 김범모 김병곤 김병규 김병기 김병록
김병선 김병수 김병완 김병윤 김병화 김병희 김보경 김보남 김보라 김보람 김보미 김보연 김보영 김보윤 김복석
김복주 김봉규 김봉균 김봉남 김봉석 김봉선 김봉신 김봉환 김봉희 김부정 김산 김삼용 김삼철 김삼희 김상갑
김상권 김상규 김상균 김상남 김상만 김상수 김상운 김상원 김상윤 김상익 김상전 김상조 김상주 김상준 김상중
김상진 김상호 김상화 김상희 김생기 김서경 김서형 김석 김석곤 김석기 김석란 김석성 김석수 김석용 김석환
김선 김선경 김선교 김선기 김선미 김선봉 김선아 김선애 김선영 김선옥 김선우 김선웅 김선일 김선정 김선조
김선주 김선창 김선호 김선홍 김선화 김선희 김성곤 김성국 김성률 김성민 김성수 김성숙 김성식 김성실 김성심

김성은 김성익 김성자 김성재 김성철 김성태 김성택 김성한 김성호 김성화 김성환 김세걸 김세광 김세남 김세안
김세우 김세원 김세은 김세정 김세중 김세홍 김세희 김소령 김소미 김소연 김소영 김소윤 김소은 김소진 김송은
김수경 김수곤 김수길 김수란 김수범 김수빈 김수아 김수연 김수열 김수영 김수옥 김수이 김수정 김수철 김수한
김수현 김수환 김수희 김숙 김숙자 김숙희 김순남 김순애 김순옥 김순자 김순호 김순화 김슬기 김승주 김승준
김승현 김승호 김승환 김시은 김시정 김시하 김신 김신록 김신숙 김신완 김신우 김신자 김신형 김씨디 김아람
김아애 김아영 김애록 김애선 김애숙 김애영 김애화 김양균 김양근 김양미 김양수 김양숙 김양순 김양우 김양준
김여린 김여명숙 김여진 김연규 김연성 김연수 김연수 김연순 김연신 김연우 김연재 김연주 김연진 김연철
김연태 김연화 김영각 김영곤 김영국 김영균 김영기 김영남 김영단 김영대 김영돈 김영동 김영린 김영만 김영목
김영미 김영민 김영배 김영배 김영석 김영선 김영수 김영숙 김영순 김영시 김영식 김영신 김영실 김영옥 김영우
김영욱 김영은 김영일 김영임 김영제 김영종 김영주 김영준 김영진 김영철 김영춘 김영태 김영한 김영헌 김영호
김영화 김예나 김엽선 김옥순 김옥자 김옥희 김완수 김완준 김왕경 김요안 김용관 김용구 김용규 김용대 김용민
김용삼 김용석 김용수 김용언 김용엽 김용운 김용의 김용재 김용준 김용진 김용찬 김용태 김용필 김용휘 김용희
김우경 김우리 김우영 김우용 김우현 김운영 김웅 김원 김원섭 김원수 김원용 김원철 김원한 김원호 김유경
김유미 김유선 김유성 김유정 김유진 김윤경 김윤기 김윤미 김윤석 김윤세 김윤소 김윤솔 김윤식 김윤옥 김윤정
김윤종 김윤진 김윤창 김윤희 김율 김은경 김은국 김은미 김은민 김은숙 김은아 김은영 김은원 김은자 김은재
김은정 김은주 김은하 김은향 김은회 김은희 김의석 김의인 김이기 김이레 김이숙 김이원 김이종 김이택 김이현
김익록 김익수 김익환 김인경 김인규 김인도 김인래 김인선 김인섭 김인수 김인숙 김인식 김인웅 김인자 김인택
김인호 김인휴 김일권 김일종 김자영 김장우 김장호 김장훈 김재갑 김재길 김재숙 김재식 김재영 김재원 김재윤
김재은 김재진 김재춘 김재필 김재헌 김재현 김재형 김재홍 김재화 김재환 김재훈 김재희 김점희 김정곤 김정국
김정근 김정대 김정란 김정미 김정민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안 김정연 김정엽 김정옥 김정우 김정원
김정은 김정일 김정임 김정주 김정진 김정태 김정헌 김정현 김정혜 김정호 김정환 김정훈 김정희 김제남 김종관
김종덕 김종동 김종배 김종범 김종석 김종성 김종수 김종순 김종식 김종신 김종오 김종옥 김종우 김종욱 김종운
김종원 김종율 김종일 김종임 김종철 김종필 김종항 김종현 김종환 김종훈 김주남 김주연 김주영 김주완 김주이
김주현 김주희 김준규 김준기 김준석 김준수 김준열 김준용 김준태 김준학 김준혁 김준형 김준호 김중례 김지나
김지미 김지민 김지선 김지성 김지수 김지아 김지양 김지연 김지용 김지우 김지운 김지인 김지철 김지헌 김지현
김지형 김지혜 김지희 김진 김진경 김진관 김진교 김진규 김진묵 김진민 김진섭 김진성 김진수 김진숙
김진여심 김진영 김진용 김진우 김진이 김진주 김진표 김진하 김진현 김진호 김진홍 김진황 김진희 김찬수
김찬웅 김찬호 김창규 김창범 김창선 김창수 김창연 김창주 김창집 김창현 김창환 김천애 김철 김철규 김철수
김철한 김철호 김철홍 김청호 김초희 김추령 김춘우 김춘화 김출호 김충수 김충효 김칠성 김타균 김태곤 김태권
김태미 김태민 김태산 김태선 김태순 김태식 김태연 김태엽 김태용 김태우 김태원 김태일 김태임 김태한 김태현
김태형 김태환 김태훈 김택중 김평만 김평중 김평화 김필호 김하미 김하영 김하진 김학선 김학숙 김학실 김학중
김학진 김학태 김한규 김한나 김한도 김한미 김한민 김한수 김한순 김한욱 김한정 김한주 김한준 김해경 김해련
김해선 김해심 김향자 김향호 김향희 김혁 김현경 김현곤 김현교 김현미 김현빈 김현서 김현석 김현성 김현수
김현숙 김현식 김현애 김현옥 김현우 김현이 김현익 김현정 김현종 김현주 김현중 김현진 김현철 김현호 김형곤
김형국 김형권 김형균 김형근 김형길 김형모 김형미 김형석 김형선 김형성 김형숙 김형신 김형열 김형준 김형중
김형진 김형철 김형태 김혜경 김혜란 김혜련 김혜림 김혜빈 김혜성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장 김혜정 김호경
김호림 김호상 김호연 김호현 김홍구 김홍기 김홍석 김홍선 김홍성 김홍태 김화자 김효곤 김효근 김효숙 김효영
김효정 김효진 김훈 김홍수 김희경 김희근 김희빈 김희상 김희순 김희영 김희정 김희주 김희태 나경선 나기철
나도남 나범준 나봉임 나성곤 나소열 나승구 나승혜 나웅 나윤경 나윤희 나은미 나은중 나인경 나인범 나인호
나정아 나종문 나종민 나중한 나진희 나태영 나한영 나현숙 나혜령 남경아 남경완 남경탁 남경희 남궁경 남규홍
남기정 남동환 남미란 남미자 남미현 남병영 남보현 남봉우 남상이 남상진 남수정 남수환 남승우 남안진 남영민
남영복 남운선 남웅찬 남원숙 남윤우 남은성 남은아 남인순 남정섭 남정수 남정임 남주희 남중재 남진희 남춘옥
남춘우 남충일 남태웅 남태원 남현수 남현우 남현주 남형윤 남혜정 남홍근 노경래 노경문 노경미 노경민 노경배
노금선 노동섭 노동환 노민주 노민호 노복연 노석양 노성문 노성철 노세이 노세호 노숙영 노시균 노영근 노영선
노예림 노유진 노율 노은별 노은순 노인선 노재권 노정기 노정은 노정해 노정환 노주영 노주환 노준식 노지희
노진철 노태균 노태영 노태호 노해경 노현주 노훈영 노희숙 노희승 노희옥 다성스님 도경이 도면회 도은경
도의연 도재규 라성윤 라영수 류경숙 류경주 류근영 류대열 류동훈 류동희 류방란 류봉열 류상일 류상효 류석원
류석진 류성호 류수정 류수진 류시정 류시호 류은화 류인철 류일형 류임진 류재란 류재열 류정열 류제경 류제영
류지석 류지선 류지인 류지황 류태호 류한삼 류현수 류현주 류형주 류혜숙 류홍섭 류희인 리기태 리화수 마경숙
마민지 마영진 마장석 마주현 마현정 마현철 맹기선 맹봉학 맹현숙 명승은 명은선 명인환 명재석 모남순 모희정
목소영 목영봉 목혜원 무구스님 묵은영 문기수 문나래 문내현 문덕순 문라경 문명숙 문병선 문병열 문병채
문병현 문병희 문상호 문상효 문선유 문선희 문성미 문성실 문성환 문성효 문소연 문숙희 문순현 문승국 문승민
문승보 문승식 문승영 문영근 문영기 문영길 문영실 문예진 문용식 문유라 문윤 문응상 문인근 문일순 문자성
문정기 문정수 문정훈 문정희 문종열 문진경 문진수 문한주 문현성 문현아 문현진 문형관 문혜경 문혜숙 문호연
문호준 문희숙 문희주 문희현 민경배 민미홍 민병덕 민병현 민보호 민복기 민상기 민성원 민성현 민순기 민순식
민승현 민용기 민윤경 민윤기 민은정 민재일 민정희 민지원 민지은 민진혜 민천홍 민형덕 민형배 민혜경 민희도
박가나 박가영 박가은 박강수 박강훈 박건희 박경난 박경덕 박경선 박경수 박경숙 박경언 박경원 박경일 박경자
박경철 박경추 박경춘 박경태 박경호 박경화 박계순 박고운 박광만 박광엽 박광인 박광회 박국희 박귀숙 박귀애
박규리 박규삼 박근로 박근영 박금례 박금섭 박금연 박기선 박기순 박기영 박기원 박기준 박기혁 박기홍 박나경
박나래 박나리 박나은 박난주 박남수 박남영 박노곤 박노규 박대길 박대훈 박덕동 박데레사 박동광 박동규
박동균 박동래 박동식 박동원 박두규 박두산 박래수 박만순 박말희 박명남 박명숙 박명제 박명준 박명진 박문규
박문숙 박미경 박미라 박미란 박미량 박미리 박미선 박미순 박미연 박미자 박미정 박미출 박미현 박미화 박미희

희망의 별

박민규 박민아 박민영 박민주 박민혜 박배철 박병권 박병규 박병배 박병순 박병일 박병창 박보건 박보경 박보영
박삼석 박삼철 박상곤 박상무 박상배 박상복 박상옥 박상우 박상위 박상진 박상태 박상현 박서연 박서영 박서현
박석근 박석태 박선민 박선배 박선애 박선영 박선옥 박선주 박선진 박선화 박선호 박선희 박설형 박성관 박성민
박성범 박성순 박성식 박성심 박성아 박성우 박성웅 박성은 박성이 박성주 박성준 박성진 박성철 박성호 박수야
박세경 박세원 박세환 박세훈 박세희 박소라 박소민 박소연 박소영 박소윤 박수경 박수미 박수빈 박수선 박수희
박수주 박수진 박수천 박수한 박수현 박수호 박수희 박숙경 박숙윤 박숙희 박순녀 박순명 박순빈 박순성 박순애
박승남 박승아 박승자 박승준 박시연 박시웅 박시훈 박신애 박아름 박안수 박애경 박애자 박언희 박연기 박연미
박연수 박연신 박연진 박연희 박영 박영경 박영관 박영미 박영소 박영수 박영신 박영아 박영철 박영춘 박영혜
박영희 박옥순 박완규 박왕옥 박용기 박용수 박용운 박용원 박용준 박우섭 박우성 박우영 박우주 박웅희 박원미
박원철 박윤경 박윤숙 박윤재 박윤주 박윤중 박윤택 박윤희 박은강 박은기 박은미 박은석 박은수 박은식 박은영
박은우 박은정 박은주 박은지 박은하 박은혜 박은희 박의숙 박의현 박이근 박인규 박인기 박인현 박인희 박일규
박일준 박재규 박재균 박재석 박재성 박재송 박재영 박재원 박재현 박재홍 박재희 박전상 박점배 박정 박정규
박정란 박정례 박정미 박정삼 박정서 박정선 박정숙 박정식 박정애 박정연 박정옥 박정윤 박정은 박정혜 박정호
박정훈 박정희 박제훈 박종강 박종국 박종권 박종덕 박종락 박종미 박종범 박종서 박종선 박종성 박종숙 박종연
박종진 박종포 박종필 박종하 박종호 박종환 박종훈 박주련 박주영 박주원 박주형 박주호 박주희 박준빈 박준우
박준철 박준필 박준하 박준형 박준호 박준회 박중록 박중완 박중하 박중현 박지민 박지연 박지윤 박지은 박지현
박지혜 박진교 박진애 박진용 박진우 박진형 박진호 박진희 박찬서 박찬욱 박찬응 박찬이 박찬익 박창근 박창원
박창주 박창호 박철 박철세 박철은 박춘미 박춘식 박춘화 박춘희 박치득 박태민 박태수 박태원 박태일 박태현
박태환 박택현 박토마스상진 박풍교 박항기 박해숙 박해주 박해현 박행복 박현 박현석 박현수 박현숙 박혜선
박현영 박현정 박현주 박현진 박현호 박현희 박형규 박형민 박형옥 박형욱 박형주 박형준 박혜강 박혜린 박혜림
박혜미 박혜민 박혜숙 박혜윤 박혜은 박호규 박호순 박호정 박호황 박홍규 박홍종 박효석 박효진 박훈재
박흥수 박희경 박희란 박희선 박희숙 박희영 박희진 반기민 반민규 반수명 방기관 방동필 방서은 방세근 방순홍
방영배 방윤규 방정재 방지현 방지형 방혜원 방호정 배경헌 배국진 배금자 배남철 배동인 배문정 배민경 배민혜
배병우 배선임 배선화 배성연 배성훈 배소라 배소영 배수연 배수진 배애진 배양숙 배영민 배영순 배영욱 배영진
배외식 배운기 배원열 배원익 배유리 배재환 배정민 배정화 배정훈 배종언 배종현 배지우 배진교 배진희 배태영
배현주 백경호 백관숙 백금선 백낙현 백명수 백명숙 백문열 백민정 백상현 백서윤 백석인 백송이 백숙교 백승동
백승무 백승아 백승영 백승인 백승철 백승하 백영미 백영숙 백영희 백원석 백윤애 백은옥 백인용 백인화 백인환 백정숙
백정호 백종우 백종학 백준기 백진자 백현숙 백현욱 백현호 법안스님 변경희 변광석 변성혁 변안수 변애숙
변장석 변재용 변준재 변찬란 변한식 변현숙 변형구 복나영 복일해 봉민숙 봉재원 봉혜영 부근림 부윤경 빈정호
서경득 서경미 서경민 서경주 서경희 서광미 서기원 서기호 서난원 서동명 서동민 서동욱 서동혁 서매순 서명섭
서명희 서문원 서미애 서미영 서미정 서민경 서민석 서민태 서병훈 서삼호 서상교 서상인 서석태 서선미 서선영
서성민 서수정 서수진 서수형 서슬기 서승만 서승범 서승욱 서영덕 서영수 서영임 서영주 서영태 서예린 서용석
서용철 서용태 서욱 서운석 서원명 서유미 서윤미 서윤수 서윤진 서은선 서은송 서은숙 서은영 서재규 서재철
서재호 서정민 서정범 서정보 서정순 서정원 서정호 서정희 서종민 서종식 서종애 서종호 서주형 서준호 서지원
서지현 서진권 서진원 서채홍 서충모 서한석 서한솔 서현 서현정 서혜경 서혜숭 서혜정 서혜진 서흥종 서희
서희경 서희용 석기석 석락희 석상열 석승징 석애리 석영기 석정희 석춘지 선권수 선두남 선문숙 선미라 선보영
선윤식 설수정 설순일 설지원 설창환 설태민 설환준 성갑선 성기화 성기환 성낙진 성다움 성만순 성미령 성수경
성수현 성숙경 성순근 성연수 성외관 성원선 성윤주 성정수 성정오 성종남 성종훈 성지은 성지현 성창민 성한표
성행자 성현정 성현주 소단영 소병훈 소순일 소영수 소정숙 소준노 손경희 손규호 손기순 손동환 손동후 손명숙
손민우 손민정 손민지 손민진 손별 손보윤 손선숙 손성실 손세미 손언희 손열 손영목 손영미 손영숙 손영우
손영주 손은희 손인권 손재선 손재영 손재환 손정아 손정희 손제희 손주성 손주희 손준현 손진영 손진우 손학수
손해윤 손현성 손환선 손환철 손효주 송건 송경태 송경희 송교필 송금희 송기용 송기철 송기택 송기현 송미란
송길섭 송난근 송대화 송동준 송만규 송미림 송미숙 송미지 송민재 송병주 송부영 송석호 송선우 송선화 송소연
송수완 송수정 송수진 송순기 송순성 송순임 송순희 송아영 송연희 송영배 송영선 송영애 송영팔 송예진 송옥분
송요덕 송용숙 송용호 송용환 송유경 송유미 송유빈 송은경 송인근 송인세 송일남 송자은 송장식 송재순 송재우
송재윤 송재택 송정민 송정순 송종대 송종호 송종화 송주미 송준아 송중택 송지민 송지연 송지영 송지은 송진선
송진호 송창룡 송창석 송창윤 송창호 송채림 송철호 송태섭 송태준 송태호 송택진 송하진 송향숙 송헌석 신경진
송현진 송현우 송현준 송현진 송형록 송형주 송형진 송혜수 송혜숙 송혜영 송홍기 송후용 송희진 신경구
신경아 신경희 신광수 신국섭 신권익 신기수 신덕순 신덕용 신도환 신동기 신동룡 신동식 신동호 신두철 신만승
신면섭 신명철 신문경 신미숙 신미순 신미옥 신병철 신보영 신봉승 신부순 신상열 신상철 신서인 신석현 신성숙
신성식 신성욱 신소영 신송하 신수동 신수원 신숙 신승백 신승수 신승우 신승은 신아영 신연숙 신영미 신영철
신영희 신용식 신우경 신욱재 신원철 신유철 신은지 신은호 신은희 신인경 신일섭 신일현 신재민 신재위 신재호
신재홍 신정균 신정민 신정아 신정자 신정헌 신정희 신제철 신종관 신종태 신지영 신지현 신찬수 신철호 신총식
신충섭 신해영 신현대 신현만 신현정 신현주 신현철 신현추 신현환 신현희 신혜령 신혜미 신혜원 신혜진 신호선
신호재 신호창 신호철 신효정 신효진 신경섭 심동섭 심보라 심석태 심선희 심수미 심수영 심순덕 심영구 심영섭
심우만 심우영 심우중 심우진 심윤정 심은영 심은희 심의용 심재민 심재복 심재섭 심재진 심재호 심정희 심준형
심지영 심지혜 심현정 심형섭 심호영 심화섭 아영창 안강회 안경임 안계근 안관수 안관옥 안광수 안광원 안광중
안국진 안기영 안나혜 안난숙 안다연 안동균 안명희 안문숙 안미숙 안미영 안미희 안민영 안병문 안병조 안보연
안복님 안상용 안상현 안석민 안선영 안성민 안성은 안성진 안성항 안성호 안세주 안수찬 안순억 안슬기 안승봉
안애경 안연숙 안영규 안영삼 안영환 안예리 안유희 안윤경 안윤정 안은경 안은미 안은성 안은식 안은혜 안재기
안재철 안재헌 안재현 안재형 안재홍 안정 안정경 안정숙 안정애 안정화 안정희 안종록 안종범 안중락 안지윤
안지현 안진우 안진환 안채영 안충환 안치용 안태성 안필진 안향미 안현경 안현희 안형숙 안형주 안혜란 안혜숙

안혜신 안혜정 안혜진 안호근 안호영 안화연 안효숙 안효진 양갑현 양광조 양권일 양금식 양기근 양다미 양덕금
양명균 양문숙 양미자 양미희 양민숙 양민승 양민영 양병이 양병찬 양봉숙 양상철 양석원 양성우 양세훈 양소연
양숙자 양승오 양승재 양승전 양승조 양승철 양승초 양시모 양시원 양여진 양영선 양영희 양완범 양우임
양우진 양우혁 양원태 양유라 양유정 양윤순 양은주 양은혜 양인석 양인숙 양인실 양재우 양재중 양재학 양전욱
양정선 양정혜 양종관 양종희 양중석 양지원 양지주 양창영 양창익 양춘선 양춘승 양태열 양태희 양택관 양향숙
양현준 양혜란 양혜선 양희진 어수갑 어윤재 엄경미 엄경선 엄대진 엄미선 엄상현 엄승룡 엄용태 엄희식 엄정미
엄정헌 엄주경 엄준호 엄지선 엄진영 엄진옥 엄태주 엄현주 엄현진 여상구 여수경 여순이 여승철 여은희 여채영
여태전 여현호 여혜선 여희승 연규일 연성만 연숙진 염건 염경형 염기석 염영하 염영화 염진근 염창렬 예병관
예종현 오강임 오건홍 오경수 오꽃별 오남성 오남준 오내승 오능환 오대균 오덕만 오동근 오동렬 오동운 오동현
오명철 오미령 오미석 오미숙 오미영 오민석 오민웅 오백록 오상세 오상현 오석조 오석호 오선아 오선화 오설아
오설자 오성문 오성헌 오성훈 오세규 오세도 오세범 오세연 오세호 오세희 오송희 오수권 오승렬 오승섭 오승환
오연경 오연호 오영수 오영이 오영임 오영준 오영훈 오예진 오요환 오용주 오용탁 오우식 오원진 오유진
오윤옥 오윤희 오은경 오은애 오은정 오일원 오장환 오재열 오정림 오정은 오정훈 오제택 오종혁 오주평 오주현
오준교 오준영 오지은 오진락 오진숙 오진영 오진이 오진탁 오창열 오창진 오채현 오철수 오충섭 오치성 오탁근
오태희 오한섭 오현경 오현숙 오현주 오형민 오형철 오호진 옥세진 옥진호 옥흠 옹미란 왕미녀 왕미진 왕준연
왕지웅 왕춘숙 왕혜정 용윤실 우건곤 우경남 우경숙 우명주 우성란 우성민 우성실 우성희 우연창 우영숙 우영재
우영진 우원식 우원태 우은자 우은주 우재식 우지희 우현주 우화자 원경호 원기준 원대로 원동희 원라미 원명희
원삼규 원영찬 원우식 원유광 원유미 원유준 원윤희 원응호 원재희 원정연 원종아 원종철 위명은 위성곤 유건식
유경희 유광곤 유광열 유광희 유귀숙 유귀순 유금자 유길문 유난미 유대근 유대기 유덕수 유동애 유동열 유동환
유록상 유미화 유민석 유민욱 유병권 유보성 유상규 유상모 유선미 유선아 유선욱 유선희 유성일 유수림
유승목 유승우 유승익 유승제 유승혁 유승희 유시춘 유신우 유안리 유양하 유양현 유연식 유영길 유영미 유영민
유영아 유영종 유영주 유영준 유영지 유영진 유영화 유옥이 유용덕 유용문 유용준 유원금 유윤식 유윤희 유은주
유의연 유익상 유인선 유일상 유일선 유장현 유장휴 유재경 유재민 유재선 유재철 유재훈 유정수 유정옥 유정현
유정화 유종오 유주연 유주희 유준열 유지균 유지명 유지숙 유진 유진명 유진환 유창선 유창진 유창환 유충권
유탁균 유택근 유하늘 유한근 유헌석 유현 유현영 유현오 유현정 유현지 유형걸 유형근 유형준
유혜승 유혜원 유호근 유효진 유홍숙 유희숙 윤경아 윤경자 윤경희 윤귀숙 윤귀현 윤규식 윤기자 윤기호
윤기훈 윤나라 윤다옥 윤다정 윤다혜 윤대원 윤덕규 윤명숙 윤명원 윤모아 윤미 윤미경 윤미영 윤미정 윤상식
윤서연 윤서영 윤석인 윤석호 윤선규 윤선영 윤선화 윤성봉 윤성순 윤성욱 윤성혜 윤성희 윤소영 윤소천 윤송지
윤송희 윤수경 윤수영 윤수현 윤숙자 윤순영 윤순진 윤승용 윤승현 윤승희 윤신영 윤신요 윤아란 윤애숙 윤여령
윤여림 윤영률 윤영미 윤영설 윤영소 윤영옥 윤영주 윤영호 윤요섭 윤용석 윤용찬 윤용출 윤웅섭 윤유석 윤은기
윤은선 윤응덕 윤인발 윤인철 윤재병 윤재연 윤재은 윤재훈 윤정선 윤정숙 윤정용 윤정원 윤정은 윤정주 윤정현
윤정혜 윤제용 윤제인 윤종숙 윤종오 윤종혁 윤주진 윤주헌 윤주호 윤지상 윤지영 윤지형 윤진기 윤진상 윤진수
윤진아 윤진호 윤창모 윤철원 윤초원 윤춘희 윤태범 윤해경 윤행석 윤헌식 윤현 윤현상 윤현정 윤현주 윤형국
윤혜수 윤혜진 윤화섭 윤효식 윤효주 윤희 윤희은 은수진 은영 은정주 은지영 은탁 은혜경 이갑성 이갑수
이강기 이강래 이강산 이강오 이강일 이강주 이강학 이건웅 이건희 이경규 이경균 이경기 이경남 이경률
이경미 이경민 이경배 이경복 이경선 이경수 이경숙 이경아 이경애 이경열 이경영 이경우 이경욱 이경은 이경임
이경자 이경재 이경종 이경진 이경찬 이경철 이경현 이경혜 이경호 이경훈 이경희 이계림 이계성 이계안 이광연
이광철 이광호 이국노 이권수 이권의 이권희 이귀식 이귀희 이근국 이근만 이근우 이근정 이근형 이금상 이금숙
이금자 이금주 이금천 이기만 이기섭 이기언 이기우 이기원 이기자 이기재 이기준 이기천 이기현 이기훈 이길용
이나라 이나미 이나영 이난수 이난숙 이남연 이남진 이내경 이대공 이대능 이대웅 이대택 이덕우 이덕희 이도찬
이도훈 이동 이동구 이동규 이동섭 이동수 이동우 이동은 이동인 이동재 이동주 이동중 이동철 이동현
이동호 이동환 이동훈 이동희 이두훈 이득영 이득철 이란이 이리나 이마리아 이만구 이만춘 이명고 이명구
이명남 이명미 이명복 이명숙 이명옥 이명은 이명재 이명주 이명준 이명진 이명희 이무열 이문갑 이문구 이문자
이문재 이문환 이문희 이미경 이미나 이미란 이미애 이미영 이미자 이미정 이미지 이미향 이미희 이민선 이민수
이민숙 이민아 이민애 이민영 이민우 이민정 이민주 이민진 이민형 이범 이범석 이범재 이병관 이병국 이병노
이병모 이병문 이병선 이병식 이병찬 이병창 이병철 이병한 이병호 이병화 이병후 이병훈 이보경 이보라 이보람
이보비 이보삼 이보연 이보영 이봉금 이봉수 이봉용 이빈파 이산 이삼희 이상갑 이상구 이상규 이상기 이상길
이상대 이상덕 이상동 이상록 이상림 이상면 이상미 이상민 이상범 이상봉 이상석 이상선 이상아 이상연
이상엽 이상용 이상욱 이상원 이상준 이상철 이상헌 이상현 이상호 이상훈 이새봄 이새하 이서영 이서철 이석경
이석모 이석문 이석원 이석준 이석호 이석훈 이석희 이선 이선매 이선미 이선아 이선애 이선영 이선진 이선형
이선혜 이선홍 이선화 이선훈 이선희 이성균 이성란 이성수 이성숙 이성암 이성요 이성용 이성우 이성은 이성인
이성일 이성자 이성준 이성호 이성희 이세규 이세리 이세숙 이세옥 이세은 이세향 이세형 이세희 이소라 이소림
이소연 이소영 이소원 이소현 이송옥 이수경 이수관 이수광 이수내 이수안 이수연 이수영 이수정 이수진 이수현
이수호 이숙경 이숙향 이숙희 이순녀 이순덕 이순열 이순우 이순임 이순자 이순향 이순희 이슬 이슬기 이슬아
이승란 이승민 이승연 이승영 이승용 이승우 이승재 이승준 이승진 이승철 이승현 이승훈 이시내 이시은
이시호 이신혜 이신화 이아림 이아영 이안교 이애희 이양주 이양희 이여진 이연빈 이연수 이연숙 이연주 이연호
이연화 이영경 이영구 이영난 이영란 이영미 이영복 이영선 이영섭 이영성 이영수 이영숙 이영순 이영완 이영욱
이영은 이영음 이영일 이영주 이영지 이영진 이영철 이영춘 이영택 이영학 이영훈 이영희 이예림 이예소 이옥경
이옥금 이옥선 이옥성 이옥자 이왕규 이왕준 이용관 이용규 이용기 이용수 이용숙 이용식 이용우 이용원 이용찬
이용철 이용훈 이우연 이우영 이우철 이욱자 이욱주 이운선 이운식 이웅장 이웅희 이원근 이원덕 이원도 이원목
이원보 이원심 이원재 이원진 이원혜 이원호 이유나 이유빈 이유식 이유영 이유의 이유정 이유진 이윤경 이윤구
이윤모 이윤미 이윤배 이윤아 이윤정 이윤호 이윤환 이윤희 이은경 이은려 이은미 이은비 이은상 이은석 이은선

이은숙 이은애 이은영 이은옥 이은정 이은주 이은준 이은지 이은직 이은진 이은혜 이은희 이을석 이응훈 이의엽
이의인 이의중 이이숙 이인규 이인동 이인석 이인선 이인성 이인숙 이인식 이인실 이인안 이인태 이일권 이일문
이일숙 이일용 이임복 이자영 이장령 이장한 이재갑 이재경 이재광 이재국 이재규 이재령 이재상 이재성 이재수
이재숙 이재승 이재열 이재영 이재왕 이재우 이재욱 이재유 이재은 이재천 이재철 이재필 이재현 이재호 이재화
이재황 이재훈 이재흥 이전영 이점호 이점희 이정구 이정국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정례 이정미 이정민 이정범
이정선 이정숙 이정식 이정애 이정언 이정연 이정열 이정우 이정욱 이정윤 이정은 이정자 이정재 이정찬 이정천
이정철 이정한 이정현 이정화 이정훈 이정희 이제경 이제명 이제이 이제학 이조희 이종경 이종근 이종도 이종린
이종명 이종문 이종봉 이종성 이종식 이종아 이종오 이종우 이종욱 이종찬 이종탁 이종학 이종혁 이종현 이주상
이주식 이주연 이주영 이주학 이주한 이주헌 이주현 이주호 이주희 이준기 이준범 이준복 이준식 이준영 이준옥
이준원 이준행 이준호 이중욱 이중현 이중호 이지민 이지복 이지선 이지수 이지숙 이지연 이지영 이지욱 이지원
이지은 이지의 이지중 이지혜 이지호 이지훈 이지희 이진 이진경 이진민 이진복 이진선 이진순 이진안 이진여
이진연 이진영 이진오 이진우 이진주 이진하 이진형 이진호 이진홍 이진화 이진흥 이진희 이찬순 이찬우 이찬욱
이찬웅 이찬희 이창국 이창석 이창우 이창원 이창윤 이창준 이창한 이창환 이창희 이채웅 이천근 이천우 이천직
이철구 이철범 이철수 이철원 이철호 이철훈 이청원 이춘로 이춘섭 이춘영 이충기 이충엽 이충원 이충희 이태규
이태근 이태성 이태호 이태환 이태희 이판도 이평재 이필근 이하연 이하영 이하주 이하진 이학남 이학노 이학희
이한구 이한성 이한진 이해근 이해란 이해선 이해숙 이해식 이해영 이해완 이해진 이향림 이향숙 이현규 이현무
이현미 이현배 이현숙 이현심 이현정 이현종 이현주 이현준 이현진 이형구 이형범 이형숙 이형자 이형주 이형학
이혜경 이혜란 이혜명 이혜선 이혜숙 이혜연 이혜영 이혜욱 이혜인 이혜정 이혜주 이혜진 이호경 이호광 이호군
이호규 이호석 이호섭 이호순 이호원 이호인 이호준 이호진 이호찬 이화영 이화철 이화춘 이환열 이황 이효상
이효순 이효율 이효재 이효진 이후술 이훈 이훈희 이홍래 이희걸 이희경 이희민 이희석 이희성 이희송 이희수
이희숙 이희영 이희예 이희정 이희중 이희진 인성분 인은숙 임경숙 임경택 임국진 임근래 임나경 임나영 임나현
임나혜숙 임남희 임대근 임대홍 임도경 임동석 임동준 임동진 임명숙 임범진 임병석 임복철 임선옥 임성미
임성주 임성환 임성훈 임세원 임수진 임수현 임승국 임승철 임양묵 임영일 임영철 임영택 임영해 임예지 임오승
임완숙 임용성 임용환 임우진 임원식 임원영 임원택 임윤경 임윤진 임은경 임은미 임은주 임은하 임응순 임인규
임자인 임재연 임재택 임재호 임정미 임정빈 임정섭 임정숙 임정은 임정임 임정택 임종진 임종혁 임종호 임종희
임주영 임주현 임주환 임준엽 임준철 임준형 임지민 임지수 임지연 임지원 임지회 임진수 임진우 임찬수 임창연
임채숙 임채용 임철진 임춘성 임태홍 임평규 임학상 임행미 임혁 임현규 임현석 임현정 임현주 임형식 임형신
임형욱 임형주 임형칠 임형택 임혜영 임호수 임호택 임홍탁 임희경 장가연 장경미 장경욱 장경호 장경훈 장규성
장근수 장근화 장금순 장기명 장기석 장기수 장난영 장다순 장다영 장대도 장도성스님 장동일 장동찬 장동춘
장동하 장명옥 장미옥 장미정 장미희 장민경 장민석 장병건 장병영 장병일 장병학 장병화 장복규 장복순 장분실
장석한 장선례 장선희 장설자 장성민 장성한 장세훈 장수진 장숙이 장승욱 장연규 장연정 장영덕 장영란 장영순
장영훈 장영희 장완익 장용동 장우연 장욱진 장원홍 장유림 장유성 장유식 장윤정 장윤주 장윤호 장은미 장은옥
장은정 장이규 장인기 장인욱 장재섭 장재성 장재익 장재현 장재형 장재환 장정우 장정희 장종혁 장종호 장종환
장주열 장준선 장준영 장준화 장지연 장지혜 장진기 장진영 장진우 장진원 장진주 장진호 장창덕 장채순 장춘화
장춘희 장태동 장필호 장하늘다래 장한별 장향자 장현 장현숙 장현정 장현철 장현희 장혜경 장혜정 장혜지
장홍근 장홍석 장훈열 장희영 장희욱 장희정 전거성 전경미 전귀정 전규석 전금 전금석 전기택 전남경 전달래
전대욱 전대진 전돈일 전동수 전동술 전동준 전만춘 전명국 전명숙 전미례 전미선 전미진 전미학 전미화 전민구
전민주 전병길 전병두 전병은 전봉석 전부옥 전빛이라 전상용 전상호 전서열 전선녀 전선영 전선희 전소연
전수영 전수정 전수진 전순림 전승완 전승훈 전시은 전영미 전영원 전영재 전예준 전예진 전옥경 전옥진 전우배
전유미 전유영 전은민 전인숙 전일교 전재은 전재환 전정식 전정연 전조민 전준형 전중호 전지영 전지은 전진
전진아 전진영 전태윤 전하민 전하얀 전하영 전향란 전현주 전형준 전형태 전혜원 전홍식 전환길 전환주 전희식
전희준 정가영 정갑식 정건화 정경미 정경숙 정경영 정경원 정경화 정계채 정광숙 정광순 정광영 정광필 정광희
정구영 정권화 정귀옥 정규옥 정규호 정근철 정근희 정금채 정기욱 정기웅 정기일 정기재 정기홍 정기훈 정길영
정낙섭 정낙식 정남선 정남수 정다영 정다운 정다정 정다희 정대동 정대이 정대진 정동명 정동식 정동욱 정동희
정두한 정만순 정명숙 정명진 정명희 정문교 정문선 정문숙 정문식 정문영 정문희 정미경 정미남 정미선 정미숙
정미영 정미희 정민기 정민성 정민우 정민재 정병길 정병성 정병오 정병호 정병화 정보영 정보현 정복선 정봉은
정사랑 정삼숙 정삼진 정상규 정상덕 정상룡 정상오 정상택 정상훈 정새롬 정서린 정서영 정석구 정석윤 정선영
정선옥 정선주 정선화 정성국 정성념 정성만 정성섭 정성용 정성원 정성일 정성한 정성후 정성훈 정성희 정세균
정세빈 정세영 정세용 정세진 정세훈 정세희 정소익 정수미 정수아 정수열 정수원 정수진 정순남 정순자 정순진
정순혁 정순호 정승애 정승우 정아영 정양심 정양임 정연수 정연신 정연옥 정연욱 정연희 정영규 정영근 정영기
정영배 정영선 정영수 정영숙 정영아 정영애 정영오 정영옥 정영이 정영일 정영택 정영희 정예진 정옥경 정옥희
정완숙 정용덕 정용선 정용우 정용욱 정용운 정용재 정용택 정용호 정용희 정우성 정우식 정우용 정운봉 정원모
정원환 정유경 정유락 정유리 정유석 정유진 정유화 정윤복 정윤상 정윤성 정윤승 정은경 정은령 정은선 정은숙
정은주 정은진 정은태 정은혁 정은화 정은환 정을호 정의숙 정의진 정익교 정익기 정인 정인경 정인숙 정인조
정인택 정일영 정일웅 정자원 정재국 정재선 정재식 정재우 정재윤 정재익 정재정 정재철 정재혁 정재화 정재훈
정정균 정정섭 정정윤 정정훈 정제봉 정종석 정종혁 정종훈 정주량 정주형 정주환 정준모 정준용 정지선 정지연
정지영 정지원 정지훈 정진섭 정진영 정진옥 정진우 정진철 정진택 정진행 정찬영 정찬용 정찬은 정찹섭 정창교
정창기 정창훈 정철운 정철현 정철호 정태욱 정태흠 정필홍 정학균 정한성 정한솔 정한수 정한주 정해경 정해자
정헌율 정현모 정현미 정현숙 정현순 정현욱 정현주 정현진 정현철 정현태 정형자 정혜숙 정혜승 정혜옥 정혜욱
정호영 정화영 정환수 정회엽 정효숙 정효은 정효주 정효진 정홍락 정희경 정희선 정희숙 정희순 정희영 정희정
제미경 제미림 제민준 제윤경 제희원 조강주 조경남 조경래 조경숙 조경아 조경오 조경현 조경희 조계숙 조계현
조계형 조관연 조광모 조광석 조광연 조광현 조권회 조규선 조규주 조규택 조금희 조기선 조길래 조길용 조나영

조달순 조덕희 조동진 조동희 조두현 조랑현 조면행 조명순 조명제 조명진 조명화 조미숙 조미은 조미정 조민
조민경 조민정 조민지 조민호 조범혜 조병식 조병웅 조병일 조상귀 조상민 조상현 조서은 조선희 조성갑 조성경
조성국 조성룡 조성범 조성빈 조성오 조성임 조성재 조성전 조성형 조성환 조성희 조세연 조송현 조수강 조수연
조수영 조수현 조숙영 조숙임 조순동 조순실 조승연 조아라 조아영 조아진 조애영 조연미 조연옥 조연주 조영란
조영신 조영옥 조영중 조영현 조영호 조영화 조예지 조예진 조용남 조용언 조용진 조우석 조원봉 조원철 조원필
조원희 조유나 조유순 조윤임 조윤주 조은경 조은남 조은선 조은수 조은영 조은정 조은주 조은하 조은현 조은형
조은혜 조은희 조이숙 조익수 조인선 조인성 조인준 조인현 조인혜 조장래 조장희 조재근 조재범 조재원 조재일
조재화 조정민 조정숙 조정윤 조정은 조정자 조정화 조정희 조종철 조종한 조주연 조주현 조준우 조준행 조준호
조중연 조지연 조지형 조진영 조진현 조진희 조창근 조창연 조창현 조채윤 조천수 조춘원 조태경 조태기 조태민
조태운 조태진 조태훈 조한종 조항미 조항원 조해권 조해수 조향 조현우 조현중 조현진 조현희 조혜련 조혜민
조혜숙 조혜원 조혜진 조호상 조호수 조희성 조희정 종인선 주경란 주경미 주경신 주경희 주귀련 주금숙 주낙영
주다영 주다온 주민선 주민하 주범수 주석주 주성희 주세연 주수원 주승용 주영애 주은수 주인석 주인수 주재록
주중식 주중연 주지혜 주창호 주필숙 주현 주형선 주혜경 주혜리 주혜진 지경배 지관근 지덕근 지상현 지선경
지선명 지선영 지선우 지애종 지영 지예리 지유나 지은주 지정구 지정배 지정순 지주학 지한태 지혜빈 진경배
진경연 진규엽 진난옥 진명희 진수경 진수현 진신정 진안민 진우삼 진유강 진재선 진창호 진태준 진하늘 진하람
진해성 진화스님 차경천 차국환 차다은 차명례 차명미 차미경 차민경 차병률 차선주 차성수 차성현 차수옥
차순덕 차승주 차승현 차영미 차영석 차영준 차윤미 차윤주 차윤호 차의복 차철욱 차태정 차혜란 차혜영 차호석
차희석 채갑석 채광선 채다영 채명보 채미경 채상우 채수덕 채영길 채영수 채옥경 채준호 채지안 채지연 채현국
채현실 채효정 채희경 채희령 채희순 천강희 천경송 천경희 천관희 천서영 천영섭 천용택 천우철 천원주 천은호
천장호 천재박 천재현 천하람 천홍주 천희진 최가람 최갑선 최갑진 최경련 최경민 최경수 최경식 최경실 최경아
최경웅 최경화 최경희 최광선 최광재 최광진 최광필 최광호 최국모 최국식 최기동 최기배 최남춘 최다인 최도선
최동식 최명 최명섭 최명자 최명철 최명환 최명희 최문성 최문자 최문정 최문주 최문헌 최문혁 최미숙 최미옥
최미은 최미화 최민규 최민준 최병대 최병수 최병일 최병재 최병주 최병태 최보경 최보순 최본 최봉근 최봉남
최봉주 최부휴 최상순 최상아 최상용 최상원 최상호 최서영 최석구 최석호 최선경 최선아 최선옥 최선혜 최선희
최성범 최성복 최성신 최성원 최성종 최성준 최성희 최세문 최세영 최세정 최소연 최소영 최수미 최수아 최수정
최수희 최숙명 최순희 최승관 최승권 최승숙 최승연 최승일 최승재 최승현 최신현 최신형 최아라 최양수 최억영
최연미 최연서 최연율 최영 최영동 최영미 최영선 최영숙 최영식 최영애 최영운 최영인 최영주 최영호 최영환
최영훈 최영희 최예경 최예준 최완규 최요셉 최용극 최용대 최용석 최용선 최용수 최용혁 최용호 최용환 최욱
최운성 최운열 최웅집 최원배 최원진 최원호 최유라 최유선 최유재 최유진 최윤석 최윤선 최윤필 최윤호 최윤희
최은 최은석 최은숙 최은아 최은양 최은영 최은정 최은하 최은혜 최의성 최인순 최재석 최재식 최재영 최재원
최정미 최정숙 최정심 최정아 최정애 최정현 최정희 최종남 최종식 최종철 최종협 최주영 최준란 최준용 최준혁
최준호 최지미 최지선 최지영 최지혜 최지홍 최지희 최진구 최진규 최진기 최진백 최진숙 최진욱 최진주 최진화
최진희 최차숙 최창숙 최철수 최춘식 최태영 최태욱 최하나 최한나 최한석 최한창 최혁성 최현 최현미 최현숙
최현이 최현정 최현주 최형욱 최형필 최혜령 최혜숙 최혜연 최혜영 최혜자 최혜정 최호령 최호연 최호열 최화진
최환규 최황 최휘용 최희천 추노을 추민지 탁나영 탁석한 탁수진 탁주영 탁하진 탁현민 팽춘화 편정자 편화선
표혜정 하가은 하경환 하나미 하동구 하미혜 하상영 하석태 하성자 하성주 하성호 하수정 하연경 하영석 하영숙
하영인 하예진 하옥남 하용식 하재남 하재천 하재훈 하정관 하정혜 하정화 하진규 하태국 하태동 하태웅 하태현
하현정 하효진 한경미 한경아 한경애 한경혜 한경희 한광수 한금희 한기성 한기찬 한대상 한대홍 한덕진 한동열
한동우 한만일 한만호 한명선 한명자 한명희 한문호 한미라 한미지 한병엽 한병철 한보훈 한상국 한상엽 한상욱
한상원 한상철 한상현 한석규 한석준 한선경 한성규 한성주 한성철 한성희 한소연 한솔희 한송이 한송희 한수정
한수현 한숙희 한순웅 한승미 한승아 한승재 한승희 한양재 한연규 한영미 한영순 한영주 한영희 한우정 한원복
한원식 한원화 한유경 한윤정 한윤주 한윤희 한율 한의석 한인경 한재우 한재은 한재호 한정석 한정수 한정태
한정한 한정화 한정훈 한정희 한종호 한주희 한준택 한지나 한지혜 한진경 한진우 한창석 한창욱 한철규 한철수
한철희 한평수 한현수 한현주 한혜경 한혜숙 한혜영 한혜진 한호 한호정 한호형 한홍택 한효순 한희숙 함경식
함별 함식 함영숙 함오연 함운경 함지훈 함철 허명희 허문경 허성식 허성철 허성훈 허세기 허승량 허신용
허신행 허아람 허안숙 허영자 허영진 허예조 허용권 허유정 허윤영 허윤정 허은영 허은혜 허의 허인 허정미
허정민 허정숙 허주형 허준연 허중빈 허지안 허지연 허지윤 허진란 허진영 허찬국 허태욱 허태혁 허향진 허혜인
허호 허홍열 허훈 현경미 현고스님 현미열 현범휘 현사회치 현상진 현순희 현승자 현승훈
현암스님 현우택 현진호 현충선 홍갑선 홍경숙 홍경표 홍경희 홍군선 홍규창 홍균표 홍남숙 홍덕표 홍두준
홍명근 홍명수 홍명자 홍명희 홍미숙 홍민경 홍민의 홍봉선 홍사여리 홍사웅 홍샘 홍선 홍선경 홍선미
홍선주 홍선희 홍성대 홍성미 홍성범 홍성열 홍성완 홍성진 홍소영 홍수경 홍순미 홍순자 홍순정 홍순창 홍승기
홍승애 홍승연 홍승현 홍승희 홍신애 홍쌍리 홍아민 홍영기 홍영림 홍영애 홍영임 홍운기 홍원석 홍윤비 홍윤석
홍은영 홍은재 홍인영 홍정구 홍정국 홍정림 홍정표 홍제남 홍종순 홍주연 홍주의 홍준표 홍지민 홍지연 홍지영
홍지희 홍창선 홍태철 홍해인 홍향표 홍현주 홍혜숙 황가람 황갑순 황경란 황경아 황광연 황기성 황남희 황대식
황덕연 황동근 황명철 황명화 황미연 황민령 황병태 황상철 황상훈 황서현 황석권 황선봉 황선영 황선옥 황선주
황선중 황선혜 황성주 황수엽 황수진 황순구 황순복 황순현 황신애 황아미 황영미 황영섭 황영수 황영숙 황영우
황영주 황영철 황옥란 황용운 황우린 황운택 황웅규 황원형 황윤애 황윤정 황은경 황은자 황은하 황은희 황의수
황의훈 황이수 황인석 황인숙 황인철 황인희 황재순 황재천 황재희 황정옥 황정원 황정환 황정희 황종대 황주홍
황진선 황진성 황진우 황춘옥 황태근 황태영 황태주 황풍년 황해용 황해원 황해진 황현호 황혜란 황효진 황희석
효진 SI캠프에그팀 강동농업협동조합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환경미화용역팀 네이버 주식회사
법무법인 지평 부천희망재단 북로그컴퍼니 희망연대 ㈜늘봄프로덕션 ㈜동림종합조경 ㈜미네랄바이오 ㈜비엠디
㈜슬로워크 ㈜엠투소프트 ㈜유브레인커뮤니케이션즈 ㈜현대자동차 ㈜혜성청과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지난 아홉 해 동안 희망제작소와 함께
일하고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제작소는 앞으로도 새로운 세대의 제안을 받아 안아서
더욱 깊게 연구하고 실천하며 우리 시대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희망제작소 사람들

이사회 박재승 이사장 (박재승 법률사무소 대표) / 윤석인 이사 (희망제작소 이사) / 유시주 이사 (희망제작소 기획이사) / 장병화 이사 (민족문제연구소 이사) / 정지강 이사 (대한기독서회 前사장) / 정재승 이사 (카이스트 교수) / 윤순진 이사 (서울대 교수) / 서중석 이사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 이원재 이사 (희망제작소 소장) / 오현석 감사 (가람경영자문대표) / 이옥경 이사 (내일신문 부사장)

이사장 박재승

소장 이원재

경영지원실 신재호 실장 / 김애선 선임연구원 / 박정호 연구원

연구조정실 이성은 실장 / 이은경 연구위원 / 임주환 연구위원 / 김지헌 선임연구원 / 권성하 선임연구원 / 배영순 선임연구원 / 이은주 선임연구원 / 유혜승 선임연구원 / 최호진 선임연구원 / 최은영 연구원 / 정지영 연구원 / 허새나 연구원

시민사업그룹 이원혜 연구위원 / 김산 선임연구원 / 김희경 선임연구원 / 석상열 선임연구원 / 송하진 연구원 / 안수정 연구원 / 우성희 연구원 / 허보나 연구원 / 안영삼 연구원

정책그룹 권기태 연구위원 / 정창기 연구위원 / 송정복 선임연구원 / 인은숙 선임연구원 / 이민영 선임연구원 / 임은영 선임연구원 / 장우연 선임연구원 / 이남표 위촉연구원 / 오지은 연구원 / 정효정 연구원

강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옥세진 위촉연구위원 / 김두선 위촉연구위원 / 임지영 위촉연구원